TV, 스트리밍으로 본다

메트로 2015년 3월 17일 화요일

'위험한 상견례2' 내달 개봉

삼성 타이젠카 가시권

'이재용 삼성' 스마트 전기차·바이오시밀러로 대변신

배터리·운영체제 사실상 완성… 복제약 출시도 임박

포스코 비리 수사 '영포라인' 겨냥?

롯데, 부산 창조경제 실크로드 주도

구제역과 전쟁…연구자 '감'에 맡겼다

검정기준, 특정 백신 통과에 맞춰져…온갖 편법 난무
구제역 안 걸리는 기니피그로 구제역 백신 효능 검증

근대 의학 도입 이전 한반도에서 전염병은 공포였다. 뾰족한 치료법이 없어 격리 만이 사실상 유일한 대책이었다. 한국은 이제 현대의학의 보호 하에 있다. 하지만 전근대적 관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구제역 확산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백신 도입 이후에도 구제역 확산은 멈추지 않고 있다. 격리 조치 하나에 의존하던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 검역당국은 엉터리 백신의 검정 기준을 정하면서 "연구자의 감"에 맡기는 비과학적 결정을 내렸다. 과학을 몰라서가 아니다. 업체 이해관계를 우선했다는 지적이나 그나마 가축의 전염병 문제라는 게 다행인 상황이다.

검역당국은 2011년 구제역 백신을 첫 도입한 이후 백신의 효능에 대한 논란이 일자 2013년 구제역 백신 국가출하승인 검정기준을 개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의 통과 기준은 두 가지다. 하나는 돼지 등 목적동물(처방대상인 동물)에 접종했을 때 중화항체값이 1.42 이상이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돼지 등을 기니피그로 대체해 실험했을 때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O형혈청 구제역에 대한 중화항체값이 0.9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사용중인 백신은 두번째 기준을 통과했다.

이와 관련,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시험 대상을 돼지 등 목적동물이 아닌 기니피그 등 다른 동물로 대체한 해외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며 "검역당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니피그는 실험용으로 이용되지만 구제역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동물이다. 항체구조도 다르다. 돼지 등 목적동물을 대체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다.

김 위원장은 "(검역당국의) 궤변이 조금이라도 설득력을 가지려면 돼지 등의 중화항체값 1.42에 상응하는 기니피그의 중화항체값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검역당국은 돼지 등과 기니피그 간의 중화항체값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회귀공식은 대입했지만 현재 사용 중인 백신 모두에서 상응하는 수치를 찾아내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돼지의 구제역에 효능이 있다고 억지로 엮었다는 이야기다.

기니피그 중화항체값 통과 기준인 0.9라는 수치를 따지고 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검정기준은 메리알사 계통의 백신에 대해서만 기니피그에 의한 검정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역당국은 효능이 의심돼 검정기준에서 제외된 인터베트사 백신까지 포함해 중화항체의 평균값(0.916)을 구했고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메리알사 계통만으로 평균값을 구하면 1.483이 나온다. 메리알사 계통의 백신 총 52건 중 30건이 평균값 이하로 불합격 대상이다.

검역당국은 0.916을 0.9로 단순화시키기까지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그 수치를 정한 기준을 검역당국에 물으니 '연구자는 감이란 게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검역당국은 메리알사 계통 백신들의 돼지 등 목적동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생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해외사례나 과학적 근거도 없이 비용부담 완화 등 업계의 편의를 위해 엉터리 검정기준을 만들어 구제역 백신의 효능에 대한 불신을 자초해 왔고 규정의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후속조치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검정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서상혁기자 bluesns@metroseoul.co.kr

"이보다 더 귀여울 순 없다"

metro HongKong

오션파크 코알라·캥거루 화제

홍콩에서 코알라·캥거루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메트로 홍콩은 오션파크 "오스트레일리아 어드벤처관"에서 23일 코알라와 캥거루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6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오션파크는 VIP를 대상으로 귀여운 새 식구들을 먼저 공개했다.

이 동물들을 먼저 만난 방문객들은 "코알라와 캥거루가 활발하고 귀여웠다"며 "낯선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오션파크는 코알라 캥거루의 고향인 오스트레일리아를 알리기 위해 전통 술·음식 기념품 등도 판매한다.

오션파크 마케팅이사 공지웅은 "이번 행사로 매출이 10~15% 증가할 것"이라며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해산물을 사용하고 이 지역의 다른 특색 음식들과 술을 계속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리=이국명기자

국방부장관도 '성인지력 향상' 교육 16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실시된 '성인지력 향상' 교육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청사 근무 직원들이 강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성인지력 향상 교육은 군내 성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국방부가 내놓은 대책의 일환이다. 성 관련 잘못된 고정관념을 타파해 양성 평등의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다. 국방부는 국군 전 장병을 대상으로 성인지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분기에 인사에 반영토록 했다. /연합뉴스

한국전쟁 사망 중국군 유해 입관식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중국군 유해 임시감시소에서 열린 입관식에서 주한 중국대사관 국방무관 두놓이 소장(왼쪽) 등 중국 측 인사들이 입관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 지지율, 9주만에 40%대 회복

지난 1월 이후 처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9주만에 40%대를 회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 결과(95% 신뢰수준에 ±2.0% 오차범위) 3월 둘째 주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2.8%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1월 첫째 주 이후 처음이다.

지난주와 대비했을 때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5.5%포인트(p), 대구·경북 5.1%p, 광주·전라 4.7%p, 대전·충청·세종 3.8%p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6.3%p, 30대 4.0%p, 40대 3.2%p, 50대 2.7%p 등 순이었다.

리얼미터는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둘러싼 종북 논란으로 보수층 결집이 이어지며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상승해 9주만에 40%대를 회복했다"며 "대구·경북과 60대 이상 등 핵심 지지층인 이른바 '집토끼' 계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주 연속 20%대에 머문 바 있다. 당시 부정평가 이유로는 소통 미흡 17%, 세제개편안 증세 14%, 인사 문제 10%,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음 9% 등이었다.

/정윤아기자 yoona1@

"논두렁 시계 조사"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이어진 논두렁 시계 문제와 관련,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국정원의 공작이라고 한 주장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MB정부 핵심 실세>

검찰 칼날 '영포라인' 향하나

포스코, 정준양 회장 취임 후 정권과 유착 의혹

16일 현재 검찰의 수사가 포스코건설을 넘어 포스코그룹 전체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의 수사는 포스코가 대상이지만 진정한 목표는 이명박정부의 실세들이라는 말이 많다. 수사 초기라며 선부른 예단이라고 일축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포스코와 정권 실세들의 유착 의혹은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라고 해봐야 이미 알려진 의혹을 확제지는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과연 의혹의 뿌리에 닿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거창하게 출발한 방위사업 합동수사단이 세간에 알려진 방산비리의 일부만을 건드리는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적어도 검찰의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그리고 그의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이명박정부 핵심세력인 영포회를 향하고 있다는 정황은 뚜렷하다.

영포회는 경북 영일·포항을 지역적 근거지로 한다. 포스코와의 1차적인 접점이다. 보다 직접적인 접점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2009년 초 포스코 회장직에 오르면서 만들어졌다. 정 전 회장이 취임한 뒤 포스코는 영포회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됐다.

엔지니어 출신의 정 전 회장은 당초 회장직과는 거리가 멀었다. 당연히 정 전 회장은 갖가지 구설수에 올랐고 200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당시 야당에서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던 박 전 차관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져 있다. 박 전 차관은 이 전 의원의 측근이다. 박 전 차관은 정 전 회장 취임과 함께 포스코 대표이사에 오른 정동화 전 부회장과도 연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임 회장과 부회장, 두 사람은 모두 검찰에 출국을 금지된 상태다.

영포회는 포스코의 수뇌부를 장악한 뒤 이를 최대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진지오텍과 삼창기업을 포스코가 인수한 일이 대표적이다. 두 회사는 모두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포스코 계열사에 인수됐으며 영포회와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 인수 당시 무성했다. 실제 성진지오텍 전 회장인 전모씨는 박 전 차관과 가깝고, 이두철 삼창기업 회장은 경주 이씨 종친회장을 맡으면서 이 전 의원과 관계가 돈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 재임 기간 포스코 계열사는 40여곳이 더 늘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8곳이 자본잠식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제2, 제3의 성진지오텍과 삼창기업이 드러날 수 있다. 벌써부터 포스코의 계열사 확대 과정에 정 전 회장의 친인척 회사가 동원됐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포스코의 계열사 확대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밝혀지면 정 전 회장과 이명박정부 실세들과의 연결고리들도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아직은 정 전 회장 취임 과정의 진상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여기서 영포회 인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함께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김무성 "공무원연금 야당안, 개혁 훼방"

야당 '소득대체율 50%' 주장 "동문서답식 발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초점을 흐리고 개혁을 훼방놓은 발언이며 국민생각과 동떨어진 동문서답식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의 활동시한(3월28일)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점을 지적한 뒤 "합리적 수준에서 상생의 대타협안을 도출해야 할 시기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에 큰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지금 바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은 최소 평균소득의 절반 수준은 돼야 한다"며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최소 50%가 돼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 여당은 2016년 신규임직자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한 제도개선 합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지급액이 개인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연금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이 100만원이고 소득대체율이 50%면 5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의미다.

/정윤아기자 yoona1@

중국 '사드 반대' 재차 압박

방한 중인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16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중국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류 부장조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업무 협의를 가진 뒤, '사드의 어떤 부분이 중국의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국과 한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 부장조리는 한·중 차관보 간 협의 내용과 관련해서 "사드 문제에 관해 아주 솔직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다"면서 "중국측의 생각을 한국측에 알려줬다"고 말하기도 했다.

류 부장조리의 이런 언급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하게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자국 지역 일부도 사드 영향권 아래 놓인다는 이유로 사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오고 있다. 특히 중국은 사드 문제를 미국의 대(對) 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앞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도 지난 2월 사드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류 부장조리는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AIIB의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고 한국측이 AIIB의 창설멤버가 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며 "한국측은 AIIB 가입에 따른 경제적 실익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릴 것 이라는 답변을 줬다"고 밝혔다.

/정윤아기자 yoona1@

박정희 전 대통령 신당동 가옥 개방 서울시는 신당동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을 녹음해 17일부터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신당동 62-43번지에 있는 이 가옥은 박 전 대통령이 1958년 5월부터 장충동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공관으로 1961년 8월 이주할 때까지 가족과 함께 생활했던 곳이다. 현대정치사의 중요 전환점이 된 5·16 군사정변이 계획된 곳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사드 논의 예정대로… 유승민 "정청에 전달"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국내 배치 문제와 관련,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전날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밝혔다고 전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열린 협의회 결과를 보고하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4월 임시국회 이전에 의원총회 자유토론에 의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고, 의견이 집약되면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임시국회 이전에 최소한 두 차례 이상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이번 주 국회 정치개혁특위 출범과 관련해서는 "위원 명단에 양당 모두 이해관계자가 완전히 배제되도록 합의했기 때문에 이 합의를 여야 어느 한 쪽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대단히 시끄러워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윤아기자

"부패와의 전쟁, 4대강도 넣어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6일 "4대강 사업 비리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의 12일 부정부패 척결 담화 발표와 관련해 "4대강 비리 의혹이 빠진다면 이 총리가 말한 부정부패 척결은 애초 그 시작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가 이미 척결 대상으로 꼽은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해선 "국정조사 청문회 대상과 증인 선정에 있어 어떤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조에 관련자를 모두 출석시켜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장윤아기자

서울 시민청 내달부터 월요일도 운영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시청 지하에 자리한 시민청이 월요일 휴관제를 폐지해 1년 중 신정과 설·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방한다.

시민청은 2013년 1월 개관한 이래 그동안 320만여 명, 하루 평균 5000명 이상이 찾았다. 시민 만족도도 94.2%로 집계됐다.

월요일 휴관제가 폐지되면 연간 휴관일은 기존 53일에서 3일로 대폭 줄어든다.

시는 시민 수요와 지하철 시청역·을지로입구역과 연결된 통로로 시청에 들어오는 시민의 편의를 고려해 월요일에도 시민청을 개장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월요일 퇴근 시간 전후로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와 시민청 입구 사이 분수공원에서 '활력 콘서트'를 여는 등 월요일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민청 안내센터

시는 또 서울산업진흥원(SBA) 본사가 상암동으로 이전하고 비어 있는 강남 SBA컨벤션센터 건물 1~2층에 '동남권역 제2시민청'을 8월 개관한다고 밝혔다.

시는 동남권역 시민청을 시작으로 앞으로 시내 곳곳의 빈 공공건물을 활용해 권역별 지역시민청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청에서 열리는 유료 행사를 무료로 이용하는 대상자를 외국인 주민, 다문화 가족, 새터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Seoul City Hall Citizen's office opens on Monday starting next month

The citizen's office which is located below the city hall is going to abolish the closure policy and open all year long except on the Chinese New Year's day, Lunar New Year's day and Korean Thanksgiving Day. Ever since the opening of the citizen's office on January 2013, more than 5000 citizens visited a day which adds up to a total of 3.2 million people. Also, the satisfactory rate was reported to be 94.2%.

If the Monday holiday system is to be abolished, the total number of holidays throughout the year decreases from 53 days to 3 days.

Seoul has considered the fact that people would be able to enter the city hall more conveniently if the entrances connected to the City Hall station and Euljiro Yipgu station are to be opened. Therefore, Seoul has decided to open the Citizen's office on Mondays.

Seoul is also planning to start special programs like "Energy Concert" at the fountain park between the City Hall line number 1 exit number 4 and the citizen's office entrance on Mondays.

Also, Seoul is planning to open the Second citizen's office in August at the SBA convention center 1-2 floor due to the relocation of the Seoul Business Administration headquarters.

Starting with the South eastern region citizen's office, Seoul is planning on establish more citizen's office throughout the city to public buildings. Along with this, people participating in charged events of any kind will be expanded to foreign citizens, multi-cultural families and North Koreans.

/시고교 번역 Chris Kim 번역

미국, 일본 로비에 넘어갔나

독도 표기 미 국무부 한국 여행지도서 실종

미국 국무부가 독도를 일본편 여행 지도에는 표시하고 우리나라편에는 표시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닌 일본 귀속의 영토임을 명시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15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 여행정보' 코너에 첨부된 지도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됐다.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 표기도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리앙쿠르 암은 독도의 미국식 명칭이다. 반면 일본 여행정보 코너 지도에는 일본해 표기와 함께 리앙쿠르 암 표기가 선명하게 기재돼 있다.

이 여행지도는 지난해 10월 31일 갱신된 것으로 리앙쿠르 암 표기가 한국편 여행지도에 있다가 갱신 과정에서 삭제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빠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미 중앙정보국(CIA)도 지난 1월 초 '월드 팩트북'(국가정보 보고서) 한국편 지도에서 리앙쿠르 암 표기를 삭제했다가 곧바로 복원한 바 있다. CIA는 당시 우리 외교당국에 "월드 팩트북 수정 과정에서 기술적인 실수로 한국편 지도에 리앙쿠르 암을 누락했다"고 해명하면서 즉각 수정했다.

◆ 일본 전천후 과거 세탁 로비

한편 일본은 자국에 유리한 역사를 알리기 위해 전천후 로비를 벌이는 중이다. 최근 로이터 통신은 일본 정부가 미국의 조지타운대, MIT 공대 등을 포함해 9개 해외 대학에 일본학 연구 지원용으로 150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재팬 파운데이션'도 해외 6개 대학에 각각 2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 통신은 "보수적인 아베 정부가 전쟁 당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정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이를 역사 왜곡으로 바라본다"고 평했다.

/김은희기자 unnys@metroseoul.co.kr

中 3대 무기수출국 부상 16일(현지시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는 국제 무기거래 연례보고서를 통해 2010~2014년 중국의 세계 무기수출 점유율이 5%를 기록해 미국(31%), 러시아(27%)에 이어 3위에 등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0년 11월 중국 남부 광동성의 주하이 국제 항공우주 전시회에서 파키스탄 공군 조종사들이 중국 JF-17 전투기 옆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호세프 대통령 물러나라" 120만명 탄핵 시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15일(현지시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날 시민 사회단체가 주도한 반정부 시위는 리우데자네이루와 수도 브라질리아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일제히 벌어져 참가 인원이 12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AFP 연합뉴스

TV, 이젠 스트리밍으로 본다

케이블TV·위성방송 급속 퇴조

스트리밍 서비스가 미국 방송 산업을 뒤흔들고 있다.

미디어 리서치 업체인 닐슨은 지난해 4분기 미국 내 최대 케이블TV 사업자인 컴캐스트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구당 기준)가 37만5000 가구나 늘어 2200만 가구에 달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같은 기간 케이블TV 가입자는 6000가구 증가에 그쳐 2240만 가구를 기록했다. 순증 가입자만 보면 인터넷이 케이블TV보다 6배 이상 많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중에 인터넷 총 가입자 수가 케이블 TV 가입자를 앞지를 전망이다.

2위 사업자인 타임워너 케이블은 이미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케이블TV 가입자 수를 넘어섰다.

HBO 나우 서비스 화면

이는 '코드 커터'(Cord cutter TV 방송 대신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소비자)로 불리는 신세대 가입자들이 케이블TV·위성방송보다 스트리밍 시청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넷플릭스, 아마존닷컴 프라임, 훌루 플러스가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저렴한 시청료를 앞세워 케이블TV·위성방송 가입자를 유혹하고 있다. 채널 100개 이상 패키지로 판매되는 케이블TV·위성방송의 시청료는 월 80~100 달러(약 9만~11만2000원)인데 반해 넷플릭스는 월 8.99 달러(약 1만100원)에 불과하다.

◆지상파·케이블 채널도 스트리밍 서비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존 지상파·케이블 채널도 스트리밍 서비스에 본격 나서고 있다. 미국 3대 지상파인 CBS 방송은 올해 초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다. NBC 방송을 소유한 NBC유니버설은 올해 하반기에 코미디 프로그램 중심의 유료 웹 비디오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타임워너의 자회사인 영화 채널 HBO도 지난 9일 애플과 독점 파트너십을 맺고 'HBO 나우'라는 인터넷 전용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국명기자 kmlee@

"한은, 기준금리 더 내릴수도"

IBK증권·BNP파리바 등 가능성 시사… 내수·수출부진 예상보다 심각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낮춘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하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0.25% 인하가 경기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

IBK증권은 16일 한은이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신호를 분명히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2분기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금융그룹인 BNP파리바도 보고서를 통해 추가 금리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2월 금리인하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국내 경기가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존의 성장 기대에 부족한 만큼 다음달 회의에서 GDP 성장률 전망과 인플레이션 전망을 낮출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추가 금리인하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예상보다 심각한 내수부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 국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2%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는 담뱃값 인상 부분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수준이다. 광공업 생산의 경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한은의 '소비자동향조사'에서도 국내 소비자들의 '향후 경기전망 지수'는 지난 2월 87로 6개월 전보다 13% 하락했다.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가 2.5~3.5%인 점을 감안하면 디플레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리 0.25% 인하로는 내수부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수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내수출하지수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3.70%를 나타낸 이후 가장 최근 통계치인 1월까지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내수출하지수란 기업들이 자체 생산한 제품을 국내 회사, 기관, 단체, 개인소비자 등에 판매하는 활동의 단기 추이를 나타내는 지표다. 증가율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는 것은 경기 침체로 그만큼 내수 판매가 부진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곧바로 추가 금리인하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금리인상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대출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가 다가온다는 점에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고 4월 수정 경제전망치의 경우도 외부에서 추가로 충격이 주어지지 않는 한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다만 박 연구원은 "3월 금통위 결과 2명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3월 금리인하는 박빙의 상황에서 어렵게 결정됐다"며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채권시장은 이번이 마지막 금리인하였기를 바라는 한은과 추가 금리인하를 기대하는 시장 간의 대립구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market index <16일>

/연합뉴스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증가

전국에 있는 아파트의 시가를 다 합친 가격이 지난해 말 대비 17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전국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약 2028조5269억원으로 작년 말 2011조3683억원보다 17조1586억원 증가했다.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도(1.48%)로 올해 들어 2개월만에 6조1181억원이 증가해 604조3054억원을 기록했다.

서울시(0.44%)가 증가폭이 두번째로 컸다. 작년 말 686조8584억원에서 2월 말 현재 690조7079억원으로 약 3조85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중 재건축 대상의 시가총액이 작년 말 107조5033억원에서 2월말 현재 108조7274억원으로 1조2241억원 늘었다.

이는 서울 전체 시가총액 증가액의 31.8%에 달하는 것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 수가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적은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경우 대구시는 작년 말 103조4710억원에서 올해 2월 말 105조6873억원으로 2조2163억원이 늘면서 지방 아파트중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인천시가 작년 말 대비 1조4356억원 오르며 그 뒤를 이었고 세종시도 1조334억원 상승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57조5243억원에서 2월말 현재 57조5173억원으로 70억원 하락했다.

/김학철기자 kimc[illegible]

꿈꾸고 설계하는 미래 프로그램 론칭

BNP파리바가 비영리 경제교육 기관 JA(Junior Achievement) 코리아와 함께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 멘토링과 어린이들의 경제 교육을 지원하는 '2015 꿈꾸고 설계하는 미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프로그램의 시작으로 지난 13일 BNP파리바 은행·증권에서 재직중인 임직원들은 20여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업의 다양한 직무를 소개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 노하우, 경력 관리, 모의 면접 등 진로 개발에 도움이 되는 주제로 멘토링 워크숍을 진행했다.

또 대학생들은 JA코리아의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아 직접 지역아동센터의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해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자원 봉사자들은 4월부터 연말까지 BNP파리바 임직원 멘토들과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소외 계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경제 교육을 실시, 지식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민지기자 minji@

달러화 강세로 금값 급락 미국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금값이 급락했다.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관계자가 골드바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해외 카드사용액 '역대 최고'

지난해 해외 직접구매와 해외 여행 증가로 나라 밖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국내 비거주자의 카드이용 실적도 큰 폭으로 늘었다.

16일 여신금융협회 산하 여신금융연구소는 '2014년 해외카드이용 실적 분석'을 통해 "지난해 해외 카드이용 실적이 2013년 대비 15.7% 증가한 122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해외카드 이용실적 상승 요인으로 ▲원·달러 연평균 환율 하락 ▲출국자수 증가 ▲해외 직구 상승 등이 꼽혔다.

연구소는 "원·달러 연평균 환율이 1053원으로 2013년(1095원)보다 3.8% 하락했다"며 "출국자 수는 1485만에서 1608만명으로 8.3% 증가한데다 해외 직구도 10억4000만 달러에서 15억4000만 달러로 48.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다만 "앞으로 금리 인하와 더불어 원화약세가 심화될 경우 해외 카드이용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원·달러 환율이 2.4% 상승하면서 원화가치가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전년 동기대비 해외 카드실적 증가폭은 13.0%로 둔화됐다.

3분기 18.3%보다 5.3%포인트 하락한 셈이다.

해외카드구매실적은 지난해 92억4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2.7% 올랐고, 해외 현금인출실적은 29억6000만 달러로 1.8% 감소했다.

특히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마케팅 이벤트가 제공되는 신용카드 실적이 19.1% 증가해 직불형카드의 증가율(6.0%)을 두배 이상 상회했다.

업종별 결제액은 식당업종이 1건당 65달러(약 6만8000원)이었고 슈퍼마켓업종은 1건당 평균 48달러(약 5만원)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국내에서는 카드결제 소액화가 심화되고 있어 1건당 평균 액수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별 비중은 미국이 37.7%로 1위였으며 영국, 일본, 프랑스, 중국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국내 비거주자이면서 한국에서 카드를 이용한 실적은 115억7000만 달러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 81억7000만 달러보다 41.7%나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고치다.

연구소는 "중국인 관광객 유커가 늘고 유니온페이(은련카드)의 국내 제휴가맹점이 확대되면서 유니온페이 카드 이용금액이 전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박제언기자 [illegible]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556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illegible]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01
[illegible]

자동차복합할부금융 이제 사라지나

삼성카드-현대차, 협상 '분수령'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상품 존폐 여부가 이번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오는 19일 현대자동차와의 가맹점 계약 협상을 마무리한다.

이어 기아자동차가 KB국민카드, 삼성·BC카드와의 가맹점 계약 협상을 17일과 22일에 걸쳐 진행한다. 이에 따라 복합할부가 유지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0년 도입된 복합할부금융 상품은 고객이 캐피털사의 할부를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카드사가 개입된 구조로, 결제액을 할부금융사가 대신 갚아주고 고객은 대금을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로 갚는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 과정에서 카드사가 신용공여나 대손관련 비용 없이 1.9%의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카드사의 이익배분(1.9% 중 0.53%)을 감안해 수수료를 0.6%포인트 이상 낮춘 1.3%로 바꾸자고 요구해왔다.

반면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을 체크카드 수준으로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해왔다.

결국 BC카드와 신한카드는 현대차와의 자동차 복합할부 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하나·롯데·신한·현대카드도 이달 초 기아자동차와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취급 중단키로 결정했다.

카드사들이 줄줄이 복합할부를 포기함에 따라 복합할부 금융상품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특히 현대차가 지난 10일 자동차를 구매할 때 모든 차종의 할부금리를 1% 인하한다고 발표하면서 복합할부 폐지론은 더 확산됐다.

업계에서는 삼성카드가 백기를 들 경우 복합할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카드 복합할부 취급액 규모는 지난 2013년말 기준 1조2000억원으로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카드를 제외한 카드사 가운데 가장 많다.

다만 복합할부상품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카드사는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대차가 모든 차종의 할부 금리를 1% 낮춘다고 밝히면서 일반 할부금리보다 저렴한 복합할부상품의 장점이 소멸됐다"고 평가했다.

최 연구원은 "상품 경쟁력 약화로 인해 삼성카드 복합할부상품의 취급고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작년 기준 삼성카드의 복합할부상품 취급고는 약 1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카드사 마진이 약 33bp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카드사 순익에 미치는 영향은 세전 약 33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리 하락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 압박도 예상되지만 카드대출상품의 금리는 금리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삼성카드 조달비용은 감소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아주캐피탈과 JB우리캐피탈 등 중소형 캐피탈사들은 한국GM과 손잡고 마이너스 할부 상품을 내놓으며 복합할부 폐지 대비에 들어갔다.

'마이너스 할부'는 월 할부금에 -1% 할부이자를 적용해주는 상품으로 고객은 무이자할부 혜택에 더해 매달 할부금의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캐피탈 한 관계자는 "마이너스 할부는 대출기간에 따라 10~30%의 선수금을 내야 하지만 무이자부를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타사의 2.9% 저금리 상품을 같은 조건으로 사는 것보다는 약 4만원 가량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올해 공공임대 12만 가구 공급

올해 전국적으로 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에 공공건설 임대주택 7만 가구, 매입·임대주택 5만 가구 등 총 12만 가구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급량 8만8000여 가구에 비해 36%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물량이다.

지난해 발표한 '10.30 대책'에 따라 매입 전세임대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1만 가구 증가한 5만 가구로 확정됐다. 추가된 1만 가구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급비율을 70%로 높이고 적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선정 재량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영구임대 3768가구, 소득 2~4분위 소득계층을 위한 국민임대 2만9813가구, 분양전환을 하는 5·10년 공공임대 2만1331가구, 기타 3597가구 등이다.

또 매입 전세임대의 경우 매입임대 1만2000가구, 전세임대 3만5000가구, 재건축 재개발 부도임대주택 3000가구다. 전세임대 가운데 20%(1만 가구)는 신혼부부(6000가구)와 대학생(4000가구)에게 공급된다.

입주자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임대주택포털(www.rent.alhous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신청은 금융결제원 청약서비스(www.apt2you.com)에서 하면 된다. /박선옥기자

NH농협은행, 은퇴자금 컨설팅 개시 NH농협은행은 16일 전국 1135개 지점에서 퇴직연금을 활용한 '은퇴자금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제공

임종룡 금융위원장 취임… "금융개혁 드라이브"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은 16일 "지금이야말로 금융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기회이자 개혁을 성공시킬 적기"라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금융이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 역할 변화 ▲실물지원 기능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등을 이뤄낼 것이라고 꼽았다.

그는 "'자율책임문화'가 정착되도록 금융당국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며 "지시하는 '코치'가 아니라 경기를 관리하는 '심판'으로 금융당국의 역할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검사와 제재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쇄신할 것"이라며 "개인 제재를 기관·금전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공식적 구두지시는 공식화·명문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율'과 '경쟁'을 강화해 금융회사 역시 시장규율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기술금융 등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혁신적인 자금중개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기업의 실제 수요에 맞게 자금이 공급되도록 기술금융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은행 자체 지원 역량을 배양토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임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활력을 되찾아 창의적인 모험자본과 혁신 벤처·중소기업을 연결하는 금융의 새로운 고속철도가 돼야 한다"며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걷어내고 사모펀드와 모험자본을 활성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쏟겠다"고 역설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핀테크 생태계 구축 ▲규제의 큰 틀 전환 ▲서민금융 지원체제 강화 등이 대안으로 나왔다.

임 위원장은 "비금융분야와의 융합과 해외진출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며 "핀테크업계와 금융회사, 정부 간 협력 체계를 통해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내놨다.

이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큰 틀'을 전환하겠다"며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는 정교화하고, 영업 규제와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제안했다.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선 "미시적 부문별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금융산업 전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선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개혁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규제 개혁이 현장에 기초하고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 개혁은 금융위 혼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유능한 파트너로 함께 갈 때만 금융개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속 '문견이정(聞見而定)'이라는 문구를 귀으며 "현장에 가서 직접 듣고 본 이후에 싸움 방책을 정한다는 말에 승리 비결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매주 현장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백아란기자

환율 1년 8개월 만에 1130원대 원·달러 환율이 16일 전 거래일 종가보다 3.0원 오른 달러당 1131.5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1130원 선 위로 올라선 것은 1년 8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증권사, 또 수수료 인하경쟁

계좌 트면 3년간 수수료 공짜 … 타사서 주식 대체입고 땐 축하금

주요 증권사들이 증시 활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지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무료 수수료 행사를 진행하거나 고객이 다른 증권사에서 주식을 대체해 넘는 경우 상품권과 축하금까지 제공한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LIG투자증권은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무료 수수료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추첨으로 10명의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페이스북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선 오는 20일까지 LIG투자증권 페이스북(www.facebook.com/LIG Orda)에 게시된 무료 수수료 이벤트 게시글을 공유하고 댓글을 달면 된다.

무료 수수료 이벤트는 올해 말까지 제휴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외환은행, SC은행, 기업은행)에서 LIG투자증권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고객에게 계좌 개설일로부터 주식은 3년, 선물·옵션은 1년간 매매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행사다.

LIG투자증권은 올 한해 신규 고객에게 주식 매매 수수료를 3년간 받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증권사가 수수료를 1년간 무료로 해주는 행사를 하기도 했지만 3년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다. 신한금융투자도 자사 증권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하면 3년간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타사 고객 모시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3월 말까지 은행계좌 개설 주식거래 서비스 BanKIS(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타사대체입고 이벤트 '2015 뱅키스로 Move Move'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타증권사에 보유중인 국내 또는 해외주식을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계좌로 500만원 이상 대체 입고시 1만원 상품권, 3억원 이상 입고시 최대 12만원의 축하금을 제공한다. 또 거래금액에 따라 뱅키스 신규고객에게는 최대 5만원 상품권을, 기존고객에게는 최대 9만원 상당의 거래수수료 무료쿠폰을 추가로 증정한다.

동부증권은 타 증권사 주식을 옮기거나 동부증권 추천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고객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는 '두드림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3월말까지 진행하는 '두드림이벤트'는 다사 계좌에 보유 중인 주식을 옮겨오거나 동부증권이 추천하는 금융상품에 3000만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에게 최대 20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한다.

거래 증권사를 변경할 목적으로 주식을 입고하는 고객이나 타사 계좌의 펀드를 이관하는 고객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사은품을 지급한다. 1월2일 이후 동부증권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한 고객 중 입금금액과 매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사은 혜택을 제공한다. 단 주식입고나 신규고객의 주식매수는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해 거래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동부증권 추천상품은 원금보장형 ELS 등 파생결합증권이나 주식형 혼합형 수익증권 그리고 신용등급 A등급 이상의 채권 등으로 구성됐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주가·액면가 가벼운 종목, 거래 활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액면가와 주가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거래량 기준 상위 100개사의 액면가를 분석한 결과, 58개사의 액면가가 500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거래량 상위 100개 종목의 평균 주가도 8000원으로 낮은 편이었다.

반면 거래량 하위 100개 종목은 상위 100개 종목과 비교할 때 액면가가 높은 종목이 많았고, 평균 주가도 비쌌다.

거래량 하위 100개 종목의 평균 주가는 15만9000원이었고, 액면가가 5000원 이상인 고액면가 종목이 83개사로 대부분이었다.

거래량 상위 100개사의 거래량은 유가증권시장 전체에서 69.1%를 차지했다. 반면 거래량 하위 100개사의 거래량 비중은 0.1%로 저조했다.

거래량 하위 종목 중에는 주가가 높은 초고가주가 상당수를 차지한 탓에 개인투자자의 거래량 비중도 낮았다. 거래량 하위 100개 종목의 개인투자자 거래량 비중은 69.4%로 거래량 상위 100개 종목의 개인 거래량 비중(81.4%)보다 작았다.

거래량 하위 100개 종목 중 주가가 높은 기업으로는 오리온(약 103만원·거래량 순위 623위), 롯데푸드(64만원·661위), 오뚜기(53만원·680위), 롯데칠성(176만원·684위) 등이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동성이 낮은 우량주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액면분할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한국판 다우지수 개발 ▲저유동성 종목 관리를 위한 유동성 공급자(LP) 제도 기준 강화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기준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적용시 저액면 종목 우선 적용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illegible]기자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 하락

"분양가 싼 곳에서 분양 많아 … 상승세는 여전"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7개월 만에 소폭 하락했다.

16일 대한주택보증의 분양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860만2000원이다. 이는 전달보다 3000원 떨어진 것으로 전월 대비 평균 분양가격이 하락한 것은 작년 7월 이후 7개월 만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0.43%)과 6대 광역시(−0.03%)의 분양가격이 전달보다 하락했지만 지방(0.02%)은 소폭 상승했다. 서울은 전달과 같았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분양가격이 비싼 곳에서 많은 물량이 분양되면 평균 분양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내려가는데 지난달에는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싼 곳에서 분양이 이뤄지면서 평균 분양가격이 소폭 하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분양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분양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1년 전과 비교하면 평균 분양가는 약 5% 상승했다.

2월 한 달간 평균 분양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대구(1.06%)였고, 전남(0.85%), 부산(0.33%)이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인천은 분양가격이 싼 아파트가 분양되면서 17개 시·도 중 평균 분양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1.40%)했다.

한편 2월 전국에서 신규분양된 민간아파트는 8389가구로 전달 1만741가구보다 2352가구, 전년 같은 달 1만119가구보다 1730가구 각각 감소했다.

/[illegible]기자

IBK투자증권, ELS 2종·ELB 1종 공모

IBK투자증권이 17~20일 주가연계증권(ELS) 2종과 파생결합사채(ELB) 1종을 공모한다.

'IBK투자증권 제1520회 ELS'는 KOSPI200·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유로스톡스50(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3년 만기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다. 매월 조건충족시 수익을 지급하며 6개월 마다 조기상환의 기회가 주어진다.

매월 수익지급평가일(총 36회)에 세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연 7.44%(세전) 수익을 지급한다. 6개월 주기의 조기상환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85%(12, 18, 24개월), 80%(30개월) 이상인 경우 원금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

만기기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인 기초자산이 있으며 투자기간 중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IBK투자증권 제1521회 ELS'는 KOSPI200·HSCE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3년 만기에 최고 연 7%(세전) 수익을 지급한다.

만기까지 매 6개월마다 총 5번의 조기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두 기초자산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 12개월), 85%(18, 24개월), 80%(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7%(세전) 수익을 지급한다. 또 만기기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이거나 만기까지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연 7%(세전) 수익이 가능하다. 단 만기기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미만인 기초자산이 있으며 투자기간 중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IBK투자증권 제482회 ELB'는 KOSPI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1년 만기에 최고 연 6%(세전) 수익을 지급한다.

만기평가일까지 기초자산 종가가 한번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115%를 초과하고, 9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원금상환된다.

만기평가일까지 기초자산 종가가 한번도 최초기준가격의 115%를 초과한 적이 없고 9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은 경우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이상이면 최대 연 6%(세전) 수익을, 최초기준가격 미만이면 최대 연 4%(세전) 수익을 지급한다.

만기평가일까지 기초자산 종가가 한번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115%를 초과하고, 9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은 경우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이상이면 원금상환되고 최초기준가격 미만이면 최대 연 4%(세전) 수익을 지급한다.

만기평가일까지 기초자산 종가가 한번도 최초기준가격의 115%를 초과한 적이 없고 9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이상이면 최대 연 6%(세전) 수익을, 최초기준가격 미만이면 원금상환된다.

/[illegible]기자

삼성, 타이젠카·바이오헬스로 시장 혁신 선도

자체 OS 타이젠과 삼성SDI 배터리 장착, 삼성차 경험까지 두루갖춰

삼성그룹이 신성장동력 사업과 관련 전기차 등 자동차사업 재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바이오 헬스케어 부문도 강화해 미래먹거리로 활용할 방침이다. 사실상 삼성 이재용 체제는 자동차와 바이오헬스라는 투트랙을 기반해 기존의 정보통신(IT)과 함께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은 셈이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삼성종합기술원은 새로운 운영체제(OS)인 타이젠(TIZEN)을 탑재한 전기차사업 참여 여부를 놓고 최종 의사결정 단계에 들어갔다. 최근 IT업계의 강자인 애플이 자동차산업에 뛰어들면서 미국의 IT업체는 물론 자동차업계도 긴장시키고 있어서다.

미국의 유력 언론 등에 따르면 애플은 '타이탄'으로 명명한 특수사업부를 구성했고 여기에 배치된 수백명의 인력들이 2020년을 목표로 전기차 개발에 착수했다.

전기차 개발설에 대해 애플측은 함구하고 있으나 자동차용 배터리 업체인 123시스템스가 애플을 제소한 것이 간접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외에도 테슬라 인수설과 주요인력 빼가기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삼성은 스마트폰 개발에 있어 애플보다 한발 늦어 현재까지도 후발주자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때문에 삼성은 애플보다 앞서 전기차를 양산, 운영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려고 테스크포스(TF)팀을 사실상 꾸렸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삼성은 1998년 자동차사업에서 철수했지만 여전히 사업 노하우를 지니고 있고 자체 OS 타이젠과 삼성SDI의 전기차 핵심부품인 배터리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다. 지난달 삼성SDI는 자동차 부품사 마그나 슈타이어의 전기자용 배터리팩 사업 부문 인수함에 따라 자동차용 배터리를 이루는 셀, 모듈, 팩의 일관 사업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 때문에 애플과 전기차 부문에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차 사업을 하는 기업은 환경을 생각하는 선진 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대기오염 문제로 고민하는 중국에 삼성이 전기차를 팔면 애플에 맞서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전기차 부문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케어 부문을 선택했다. 오는 2019년 240억 달러(27조원) 규모로 글로벌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제약) 개발은 물론 모바일의료 등의 고도화 기술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 그룹 내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담당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최근 바이오시밀러인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엔브렐과 레미케이드의 허가 신청서를 유럽 의약품청(EMA)에 잇따라 제출했다. 삼성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임상시험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발기간을 크게 줄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중국 보아오 포럼에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여러 국가들의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 각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의료비를 낮출 제약 등 솔루션 개발과 함께 모바일 기

술을 기반으로 병원과 환자 간 사를 실시간 연결하거나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응용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정훈기자 sjh@metroseoul.co.kr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회장 14주기 추모행사 잇달아

현대중공업그룹은 21일 고 아산(峨山) 정주영(사진) 현대 창업자의 14주기를 맞아 고인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20일 오전 8시 울산 본사 사내 체육관에서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강환구 현대미포조선 사장 등 그룹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을 열 예정이다.

추모식은 추모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추모사 낭독, 임직원들의 헌화와 분향 순으로 진행된다.

현대중공업은 20일 오후 7시까지 사내 체육관에 분향소를 운영하며 임직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자유롭게 분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 회장이 설립한 현대청운고, 현대고 등 현대학원 산하의 5개 중·고등학교도 20일 설립자의 창학정신을 새긴 창학정신비에 헌화하며 고인을 추모할 예정이다.

추모식에 앞서 18일 오후 7시 30분에는 울산대학교 주최로 추모음악회가 울산 동구 현대예술관에서 열린다.

현대중공업그룹 임원들과 울산공업학원, 현대학원 교직원 대표 등 300여명은 창업자의 기일인 21일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에 위치한 고인의 묘소를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2001년 3월 21일 타계한 정 회장은 11월 25일 탄생 100주년을 맞는다.

/이정필기자 roman@

LG전자 프리미엄급 '디오스 와인셀러' 시장 공략

LG전자는 16일 소음과 진동을 줄인 프리미엄급 디오스 와인셀러 신제품 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인버터 컴프레서를 장착해 소음을 최소화했다. 기존 제품보다 5㏈을 줄여 도서관에 있을 때보다 소음이 낮은 33㏈ 수준이다. 컴프레서가 달린 와인셀러 중 국내에서 가장 조용하다.

와인을 산화시키는 원인인 진동 역시 국내 최저 수준인 1.0㎎(중력 가속도 단위)로 낮췄다. 와인 종류에 따라 상·하칸 온도를 달리 설정할 수 있다. 레드와인, 화이트 와인 용도로 구분할 수 있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3중 유리 도어로 빛에 의해 와인이 변질되는 것을 막아준다. LED 디스플레이는 와인셀러 내부 온도를 표시해준다.

출하 가격은 43, 71, 85병을 보관할 수 있는 모델이 각각 125만, 165만, 205만원이다.

조성진 LG전자 H&A(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사업본부장 사장은 "소음과 진동을 줄인 와인셀러로 국내 프리미엄 와인셀러 시장을 지속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현기자 vasw@

현대자동차, 글로벌 대학생 기자단 11기 모집

영현대 글로벌 대학생 기자단의 체코 취재 모습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영현대 글로벌 대학생 기자단 11기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기획 취재, 영상, 리포터 등 3개 부문이다.

국내 거주 중인 내국인 재(휴)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이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은 현대차 대표 대학생 사이트 영현대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모집요강 또한 영현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는 기자단 활동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2015년 5~10월)로 개편 운영해 학생들이 프로그램 집중도를 높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단 활동 우수자에게는 해외 취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 중국, 유럽, 인도 등 현대차가 진출해 있는 글로벌 사업장(생산·판매법인, 연구소 등)의 취재와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 청년 봉사단인 해피무브 동행 취재 기회다.

또 기자단은 현대차 및 그룹에서 진행하는 신차발표회, 채용, 대학생 프로그램, 사회공헌 활동 등 국내외 주요 행사를 취재할 수 있다.

/이정필기자

삼성전자 '셰프컬렉션' 기술 방송서 공개

삼성전자가 미세 정온 기술을 알리기 위해 슈퍼 프리미엄 냉장고 '셰프컬렉션' 신규 TV CF를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TV CF에서 혁신적인 미세 정온 기술로 '팜 투 테이블 프레쉬니스'를 구현하는 '셰프컬렉션'의 차별화된 소비자 가치를 선보이기 위해 일주일 이상 전국에서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찾는 과정을 촬영했다고 16일 밝혔다.

CF는 제주도 흑우, 지리산 꽃송이 버섯, 남해 섬락 등 산지에서 느낄 수 있는 재료의 신선함을 가정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셰프컬렉션'과 일반 냉장고의 냉장실 온도 변화 차이를 그래프로 보여줘 온도 변화를 최소화해 갓 따온 식재료의 신선함을 지키는 '셰프컬렉션'의 핵심기능을 소비자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했다.

셰프컬렉션은 세계 최고 권위의 셰프들이 직접 개발에 참여해 혁신적 냉장기술과 차별적인 수납공간을 자랑하는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냉장고다. 지난 2월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한 업그레이드된 기능과 편의성을 갖춘 2015년형 '셰프컬렉션' 7종으로 출시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양성운기자

한국타이어 7년연속 국가브랜드경쟁력 1위

NBCI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글로벌 선도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는 16일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2015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National Brand Competitiveness Index)' 타이어 부문에서 7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글로벌 톱 타이어기업으로서의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또 한번 입증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타이어는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 구매의도, 충성도 등 모든 조사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국타이어 브랜드가 제공하는 이미지와 소비자가 생각하는 이미지 간 일치 정도를 의미하는 '브랜드 관계' 항목이 전년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도, 브랜드 관계 세 항목이 타사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글로벌 톱 타이어 수준의 기술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독일 3대 명차 등 완성차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활발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소비자와의 공감을 강화해 온 결과로 보인다.

현재 한국타이어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 3대 명차를 포함한 전 세계 25개 완성차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승훈기자 hun@

LG유플러스 '굿모닝 핫 비디오' 서비스 오픈

LG유플러스는 모바일IPTV 'U+HDTV'에서 매일 아침 인기 영상 콘텐츠를 보여주는 '굿모닝 핫 비디오'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매일 아침 뉴스와 드라마, 예능, 생활정보, 교양·교육 정보 프로그램의 방송 영상 등 화제의 비디오 콘텐츠를 큐레이션해 푸시알림으로 제공하는 무료 비디오 서비스이다.

화제성, 실시간성, 적절성 등 엄격한 기준으로 고른 콘텐츠를 제공하며 푸시알림을 통해 알려주기 때문에 U+HDTV 고객이라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화제의 비디오 소식을 전달 수 있다.

문현일 LG유플러스 미디어사업팀 팀장은 "온라인 및 SNS상 화제 영상을 큐레이션해 인기를 끌었던 '대박영상' 서비스에 이어 '굿모닝 핫 비디오'는 유용한 동영상을 필요한 시간에 꼭꼭하게 알려주며 고객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rjs@

서승화 한국타이어 부회장, 대한타이어공업협회 회장 취임

대한타이어공업협회는 16일 서울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 호텔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6대 회장으로 한국타이어㈜ 서승화 대표이사 부회장(66·사진)을 선출했다.

서 부회장은 보성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01년 마케팅본부 부사장, 2006년 구주지역본부 사장 등을 거쳐 2007년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 현재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2011년 제품안전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승훈기자

'한류주자' 김수현, 이민호 이어 제주항공 새모델 발탁

탤런트 김수현씨가 제주항공의 새 모델로 발탁됐다.

그동안 가수 빅뱅과 탤런트 이민호씨 등 한류스타를 모델로 기용한 바 있는 제주항공(대표이사 최규남)은 김씨와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보다 강화된 아시아 시장 확대전략 차원에서 아시아권에서 인기가 높은 김씨를 모델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향후 1년간 제주항공의 인쇄광고와 각종 온·오프라인 영상물과 항공기 내·외부 광고 등을 통해 제주항공의 얼굴로 활동하게 된다. /이한별기자 kamen@

포스코 비자금 유입경로 최종선 부실사 대금 부풀려서 사줬나?

검찰,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도 출금

검찰은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에 연루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사진은 2012년 재임 당시 현장직원들에게 윤리교육을 하고 있는 정 전 회장. /포스코건설 제공

포스코 비리혐의가 계열사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부실계열사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이 어느 선까지 흘러갔느냐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계와 법조계 복수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재임 당시 늘어난 포스코 계열사 절반가량이 현재 자본잠식 상태라는 점에서 우선 부실 기업 인수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됐다. 또 이를 통해 조성한 자금이 어느정도이며 이 돈이 MB정권 어느선까지 흘러갔느냐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부패척결을 선포한 만큼 이번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 전 회장 재임 기간 늘어난 계열사 41곳 중 18곳은 자본잠식 상태다.

2010년 포스코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 인수 과정을 둘러싸고 '정권 실세 개입 논란'이 일었던 성진지오텍이 대표적인 부실 인수 사례로 꼽힌다.

포스코는 2010년 플랜트 설비 업체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2013년 자회사인 포스코플랜텍과 합병했다. 성진지오텍은 인수·합병 뒤인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2900억원의 손실을 냈다.

검찰도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현재 포스코건설의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을 자체 적발한 회사 내부 감사자료 등 압수물 분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주말 베트남 현지 법인장을 지냈던 상무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된 박모 상무는 지난해 8월 보직해임됐으나 13일 주총이 열리기 전까지도 비등기상근임원으로 포스코건설에 재직 중이었다. 정 전 포스코회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회장 등이 개입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정 전 회장이 포스코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플랜트 사업부문 부사장으로 일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명박 정권 시절 여러 기업들을 인수해 몸집을 부풀렸다. 2007년 정 전 회장 취임 당시 포스코 자회사 수는 20여개에 불과했으나 2012년엔 70개를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 달세 협의와 부실기업 인수 등의 문제가 많았을 것이며 이를 검찰이 정조준하고 있다고 보는 의견이다. 또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풀려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중간에서 가로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이날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출국금지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이날 포스코센터에서 임원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국민과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쳐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검찰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조기에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소리기자 kesound@metroseoul.co.kr

항공권 유류할증료 1년만에 5배 오른다

미주·유럽노선 5달러→26~27달러, 동남아 2달러→10달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3월 1단계에서 다음 달 3단계로 올라간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공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1년만에 최대 5.4배 오른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1단계에서 다음 달 3단계로 올라간다.

미주 노선 유류할증료(이코노미 편도·발권일 기준)가 5 달러에서 27 달러로 5.4배 오른 것을 비롯해 유럽·아프리카 노선도 5 달러에서 26 달러로 각각 20 달러 이상 올라간다.

중동·대양주 노선은 4 달러에서 22 달러로, 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노선은 2 달러에서 12 달러로 인상된다.

또 중국·동북아는 2 달러에서 8 달러로, 일본·중국 산둥성은 1 달러에서 4 달러로, 동남아는 2 달러에서 10 달러로 각각 올라간다.

유류할증료가 오르는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만이다. 지난해 4월 15단계로 올랐다가 5월에 1단계 떨어진 이후 6개월간 14단계를 유지하다 이달까지 6개월 연속 하락했다.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월 16일~3월 15일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에서 거래된 항공유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졌다. 이 기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175.12 센트로 1개월 전보다 15.43 센트 상승했다.

한편 4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3300원으로 전월(2200원)보다 50% 올라간다. /김소리기자

대우조선, 사장 공백 현실로…상반기 수주 직격탄

16일 열린 이사회서 후임사장 인선안 빠져… 31일 주총은 고재호 사장 직무대행 체제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 공백이 현실화되며 올해 상반기 수주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현 고재호 대우조선 사장의 3년 임기는 오는 29일 만료된다.

대우조선은 16일 후임 사장 인선안을 상정하지 않고 사외이사 선임안 등 기타 안건만으로 정기이사회를 진행했다.

사측이 전날까지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열고 사장과 박동혁 부사장 등 현 경영진을 후보로 올려 이날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가 결정될 것이란 게 업계 예측이었다.

하지만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 측으로부터 사장 후보와 관련된 언질을 받지 못하면서 사추위도 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장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상법상 주총 2주 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해 후임 사장 안건을 확정해야 한다.

이에 이달 말 주총에서 신임 사장을 선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한동안 수장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고 사장은 임기 만료 이후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주총에도 자리할 예정이다. 대우조선은 다시 임시이사회와 임시주총을 거쳐 향후 3년을 이끌 사장을 찾게 됐다.

후보 선정을 위한 사추위 소집 등 관련 절차를 감안하면 후임 사장 선임까지는 2달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우조선은 올해 1분기를 넘어 2분기까지 사장공백 리스크로 수주활동에 차질을 빚게 됐다.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9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사장 선임을 촉구하고 낙하산 인선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가운데 대우조선의 신규 사내이사로 김열중 전 산업은행 부행장이 내정됐다.

김 전 부행장은 김갑중 대우조선 부사장의 뒤를 이어 CFO(최고재무책임자)를 맡을 예정이다. 김 전 부행장은 경복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부터 산업은행에 몸담아왔다.

김 부사장 역시 산업은행에서 재무본부장(부행장)을 거쳤다.

한편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과 을지로 대우조선해양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조속한 사장 선임을 촉구했다.

앞서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고 사장의 연임을 지지하는 뜻을 피력하며 "정치권의 낙하산 등 외부 인사가 아닌 내부 인사가 후임 사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성범기자 sebeeo@metroseoul.co.kr

갤럭시S6 가격·성능분석 하드웨어↑ 배터리↓

외신, 전작 갤럭시S5보다 배터리 성능 퇴보

다음 달 전 세계에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S6·갤럭시S6엣지의 일체형 배터리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최근 모바일 기기 전문 리뷰 매체인 GSM아레나와 폰아레나 등 주요 외신들은 제품 심층 리뷰와 가격 등을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16일 GSM아레나가 갤럭시S6에 대한 리뷰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Antutu를 포함한 각종 벤치프로그램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으며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일체형 배터리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제품 테스트 결과 배터리 부분에서 갤럭시S6는 전작 갤럭시S5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다. 갤럭시S6는 3G 음성통화 17시간 29분, 웹브라우징 8시간 44분, 비디오 플레이 10시간 24분으로 측정됐다. 반면 갤럭시S5는 3G 통화시간은 약 21시간 20분, 웹브라우징 9시간 36분, 동영상 플레이 시간 11시간 05분으로 기록됐다.

이는 갤럭시S6 배터리는 전작인 갤럭시S5의 2800mAh보다 줄어든 2550mAh를 채용해 용량을 줄였다. 또 경쟁 제품인 아이폰6와 비교했을때 통화시간, 비디오 재생시간은 길었지만 웹브라우징 시간이 짧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64시간이라는 배터리 시간도 짧은 시간은 아니다. 측정방식과 사용패턴에 따라 수치는 변할 수 있지만 애플의 아이폰과 경쟁에서 사용자들로 부터 장점으로 평가받았던 배터리 교체방식이 바뀌면서 그동안 교체형 배터리를 선호하던 사용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서울 테크노마트 인근 대리점 관계자는 "최근 매장에서 갤럭시S6 엣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일체형 배터리라는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가웃한다"며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폰으로 이동한 소비자 대부분이 배터리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폰아레나는 15일 언리키트 테이크닷컴을 통해 유출된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지역 갤럭시S6 엣지 판매가격표를 입수해 공개했다. 중동지역의 경우 기본 32GB급이 각각 83만원, 9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모리 용량(32GB, 64GB, 128GB)에 따라 갤럭시S6는 699~806 달러(79만~91만원), 갤럭시S6 엣지는 846~1043 달러(95만~116만원)선 이다.

/윤정원기자 ysw@

코오롱인더스트리 임직원들이 공정위 CP AA등급 획득을 축하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제공

코오롱인더, 공정위 CP 등급서 AA

코오롱인더스트리(대표 박동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신청 첫해 가장 높은 등급인 AA를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공정거래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기업이 자체 수립해 운영하는 교육·감독체계 등 내부준법시스템이다.

이번 AA 등급 획득으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향후 1년 6개월간 공정위 사안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12년 CP를 도입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체계를 마련해 독자적인 운영 계획와 운영 규정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CP 운영 체계를 구현해 왔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CP의 사내 정착을 위해 대표이사가 자율준수 의지를 공지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과 정기·수시 교육을 진행했다.

또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행해 CP운영을 점검하는 한편 '자율준수의 날'을 제정해 우수 직원에게 포상을 실시했다.

또한 '자율준수관리자 간담회의 날'을 마련하는 등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전사적 자율준수 의식 제고와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강이구 코오롱인더스트리 자율준수관리자(상무)는 "이번 최고 등급의 CP 운영 평가 획득을 계기로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심화단계의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등 앞으로도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성범기자

KT 업계 최초 IPTV 가입자 600만 돌파

KT IPTV 가입자가 600만명을 넘어섰다.

KT는 IPTV '올레tv'가 케이블 유료방송사업자 처음으로 가입자 600만명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중심으로 IPTV 서비스를 시작한 올레tv는 2008년 11월부터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제공했다.

KT는 올레tv 가입자 600만명 돌파는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내놓으며 시청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한 것이 요인이라고 자평했다.

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은 "우리나라 1등 유료방송으로 확고히 자리잡은 올레tv가 화질과 콘텐츠, 네트워크, 스마트서비스 품질 등 전 분야 혁신을 통해 '국민 IPTV'로 거듭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T는 IPTV 가입자 600만명 돌파를 계기로 향후에는 모바일 IPTV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진할 전망이다. 기존 600만명 유선 결합상품 가입자 중 KT 무선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를 고객으로 유치하고 궁극적으로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자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송선준기자 running@

롯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유통·영화·사물인터넷의 창조도시로 육성…혁신상품 가치 제고·유통산업 혁신 거점

롯데그룹이 부산을 창조경제의 신 실크로드로 조성한다.

롯데그룹과 부산시는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와 서병수 부산시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을 열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해운대구 센텀그린타워에 지상 3~4층, 2814㎡(851평) 규모로 마련됐다. 대구·대전·전북·포항·광주 등에 이어 전국에서 아홉번째다. 혁신상품 가치 제고와 유통산업 혁신 거점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색이다. 국내 최대 유통기업인 롯데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융합의 DNA를 가진 부산의 창조경제 용광로에 불을 붙여 '21세기 세계 일류도시' 부산 건설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유통·영화·영상, 사물인터넷(IoT)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픈한 만큼 롯데그룹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센텀그린타워에서 열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롯데가 부산 지역에 공을 들이는 것은 이곳이 서울 다음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벌이는 지역이란 점과 무관치 않다. 롯데는 부산 지역에 백화점 4곳을 필두로 유통·관광서비스·식품·건설 등 그룹내 모든 사업부문이 진출해 있다. 롯데그룹 소속 인력이 6000여명, 협력·관계사 인력은 3만2000여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으로 롯데와 부산 간 상생의 폭과 밀도도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

롯데가 지원하는 부산 혁신센터는 ▲혁신상품 가치 제고와 국내외 시장진출의 관문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한 영화·영상 창작 생태계 조성 ▲부산시 스마트시티 구현 계획과 연계한 사물인터넷(IoT) 스타트업 육성 등의 역할을 집중할 계획이다.

롯데는 앞으로 5년간 부산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시와 다른 유관기관과 함께 창업지원펀드 2300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성장사다리 연계 투자펀드 1000억원, 융자펀드 300억원,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위한 출자금 90억원, 창조혁신펀드 200억원 가운데 100억원, 영상 영화 융자펀드 100억원 등 총 650억원을 담당한다.

혁신상품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상품성과 시장성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들에 부족한 마케팅과 판로개척을 맞춤형으로 연계해 지원한다. 이 분야는 유통그룹 롯데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유통전문가(MD)가 센터에 상주하며 디자인과 상품개발 등을 지원한다.

영화펀드와 영화제작에 소비자가 참여하는 클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영화·영상 창작활동을 지원해 부산을 영화·영상 창작 허브로 만든다. 또 상영기회를 얻기 어려운 영화인을 위해 예술영화전용관을 현재 1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신인 유망 창작자를 양성하는 부산 영화아카데미도 신설해 부산이 명실상부한 영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방침이다.

사물인터넷육성사업도 부산 스마트시티 조성과 함께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된다. 빅데이터 처리·분석의 기반이 될 사물인터넷은 유통·영화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혁신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김희정 여성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과 부산지역 국회의원, 경제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을 계기로 총 84개 기관이 참여하는 12개 분야의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 박 대통령은 출범식 후 신동빈 회장 등의 안내로 부산 센텀그린타워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장바구니 물가에도 봄이 왔어요" 16일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대형 꽃 카트를 선보였다. 홈플러스는 500개 신선식품 연중 상시 10~30% 가격인하와 함께 오는 4월 8일까지 자사 창립 16주년을 기념해 전국 140개 점포와 인터넷쇼핑몰에서 주요 생필품, 가전, 생선 정육 등 다양한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홈플러스 제공

TV홈쇼핑 수수료 34%… GS홈쇼핑 '최고'

국내 6개 TV홈쇼핑 회사의 판매수수료율이 평균 3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등이 홈쇼핑에서 10만원어치를 팔면 수수료로 3만4400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16일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TV홈쇼핑 업체별 수수료는 GS홈쇼핑이 3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CJ오쇼핑 36.7%, 현대홈쇼핑 36.6%, 롯데홈쇼핑 35.2%, 홈앤쇼핑 31.5%, NS홈쇼핑 28.6% 등의 순이다. 이들 6개 회사의 평균 수수료는 34.4%로 집계됐다.

납품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은 평균 32.0%를 수수료로 내는 반면 유통 경쟁력이 약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이보다 많은 34.7%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납품업체의 판매 수수료율은 CJ오쇼핑 36.7%, GS홈쇼핑 34.7%, 현대홈쇼핑 33.6%, 홈앤쇼핑 31.3%, 롯데홈쇼핑 27.8%, NS홈쇼핑 27.4% 등의 순이었다.

반면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수수료율은 GS홈쇼핑이 3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대홈쇼핑 37.2%, CJ오쇼핑 36.7%, 롯데홈쇼핑 35.2%, 홈앤쇼핑 31.4%, NS홈쇼핑 29.1% 등의 순이었다.

장윤석 의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8%씩 성장하고 있는 TV홈쇼핑 시장은 중소기업에 매우 중요한 유통망이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며 "중소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TV홈쇼핑의 판매 수수료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보라기자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19일 열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SETEC(서울무역전시장)에서 '2015 제33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등이 후원한다.

'동반상생과 나눔'을 슬로건으로 기획된 이번 박람회는 참가 기업 대다수의 자발적 참여로 '성공창업을 위한 상생 특전'을 준비했다.

박람회장을 방문해 창업상담을 받거나 박람회를 통해 창업계약을 맺는 이들에게 참가 기업들은 가맹비 면제, 기술이전비 지원, 인테리어 지원, 창업비용 무이자대출 등 창업지원책을 제공한다.

스마트한 편의점

최신 IT결합…매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선봬

편의점업계가 최신 IT 트렌드를 반영한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편의성 향상을 위한 이색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편의점 씨유는 스마트 편의점을 표방하며 점포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절감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 2월 문을 연 씨유 서울대 관정도서관점은 REMS(매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를 통해 매장의 실시간 에너지 사용 현황 및 누적 데이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GS25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이 급성장함에 따라 각종 상품 정보를 고객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제공하는 비콘서비스를 시작했다. 스마트폰에 SK플래닛 시럽 앱을 내려 받고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로 GS25 인근을 지나거나 점포를 방문하면 알림 형태로 각종 기프티콘·행사정보 등이 제공된다. 편의점측은 점포 현장에서 받은 쿠폰 등을 즉시 사용 가능할 수 있어 쿠폰 따위 짐을 들고 다니는 수고를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의 혁명은 숲에서 시작된다

3/18 2PM, FINAL TICKET OPEN

DAS MUSICAL

ROBIN HOOD

로빈훗

2015.4.18- 5.25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하이트진로음료, 물 사랑 캠페인 하이트진로음료 대표 손봉수는 16일 오전 광화문 일민미술관 앞에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가족 물사랑 3·3·2' 캠페인을 열었다. /하이트진로 제공

현대아이파크몰, 옥상 '풋살경기장' 추가 개장

현대아이파크몰은 쇼핑몰 옥상에 5인제 미니축구를 할 수 있는 풋살경기장을 추가로 연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아이파크몰은 3개 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10층 옥상에 각각 길이 36m, 너비 16~18m의 경기장 2곳을 추가로 개설했다. 경기장은 야간에 경기할 수 있는 조명탑과 샤워실, 휴게실 등 부대시설을 갖췄다.

현대아이파크몰은 이번 경기장 추가 조성으로 한 달 8000명, 한해 10만명의 이용객이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실내 구장도 만들기로 했다.

풋살경기장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1타임 2시간)은 요일과 시간에 따라 8만~10만5000원이다. 현대아이파크몰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뒤 이용할 수 있다.

교촌치킨, 가맹점 대학입학 자녀 장학금 지급

교촌에프앤비가 올해 총 56명의 대학입학 자녀들에게 약 72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경인 지역 장학금 지급 대상 자녀와 가맹점주가 참석하고 교촌 본사를 견학했다.

교촌치킨은 향후 청년의 꿈 장학제도, 배달직원 보험 등 복지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우유, '스페셜티 카페라떼' 라인업

서울우유가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 스페셜티 카페라떼 100억 매출 달성에 모카와 아포가토 2종을 추가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스페셜티 카페라떼는 서울우유 커피연구소가 1년여 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선별해 만든 자체 커피음료다. 1년 전 스페셜티 카페라떼 마일드(Mild)와 다크(Dark) 2종으로 첫 출시된 이후 월평균 100만개씩 판매되고 있다.

CJ푸드빌 더플레이스, 로마 특색 살린 메뉴 5종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더플레이스가 로마를 주제로 신메뉴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더플레이스는 이탈리아 주요 3개 도시 대표 메뉴를 경험할 수 있는 '테이스티 로드 투 이탈리아'를 열고 17일부터 6월 12일까지 '테이스티 로드 투 로마' 행사를 연다.

신 메뉴 출시를 기념해 스탬프 서비스에 광화문점, 강남역점, 코엑스점 3개 매장의 식사 확인 도장을 모두 찍으면 샐러드 1개, 피자 또는 파스타 1개, 에이드 1잔을 무료 제공한다. 테이블당 1매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7월 말까지다.

파리바게뜨 복고빵 3종

파리바게뜨가 추억의 인기상품을 재조명한 복고빵 3종 이벤트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복고빵 3종인 '통에그고로케', '통째로 떡갈비', '우리쌀떡 단팥빵' 구매 시 공식 해피포인트앱을 이용하면 3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패션산업 '허리' 휘청댄다

토종 중견 패션사 아마넥스 이어 코데즈컴바인도 법정관리

국내 중견 패션기업들이 경영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글로벌 SPA(제조·유통·판매 일괄)의 공세에 맥을 못 추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코데즈컴바인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코데즈컴바인은 토종 SPA 브랜드로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매출이 2011년 2030억원까지 올랐으나 그 뒤 1000억원대로 줄어들면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영업 손실액은 2012년 72억원, 2013년 148억원, 2014년 221억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일년에 몇번씩 신제품이 바뀌는 SPA의 특성상 빠른 회전율을 충족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유니클로나 자라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대등한 수준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코데즈컴바인. 홈페이지 캡처

이에 앞서 이성복 예쎄, 아날도바시니 등을 운영하는 아마넥스도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2012년 론칭한 아웃도어 브랜드 노티카가 시장 안착에 실패했던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한편 패딩 브랜드 에스콰이아로 유명한 이에프씨(옛 에스콰이아)는 다음 달이면 새 주인을 맞게 된다.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형지는 이달 인수대금을 확정한 뒤 4월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병오 형지 회장은 지난달 사트렌 론칭 30주년 행사에서 "에스콰이아를 인수할 단계까지 왔다"며 인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패션 업계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며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매출 부진으로 존폐의 위기에 있는 브랜드가 여럿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ksy0215@metroseoul.co.kr

공정위, 아웃도어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조사

'대금 물꼬 트기 방식'으로 해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웃도어 업계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부터 약 2주간 '2015년도 제1차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아웃도어 의류 생산·판매하는 총 10여 개 업체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대금 불공정 혐의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할 예정이다.

특히 상위업체를 조사해 중소업체가 못 받아서 못 주는 문제를 풀어주는 '대금 물꼬 트기 방식'으로 해소함으로써 하도급거래 모든 단계에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해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시정하고, 문제의 원인이 상위업체에 있는 경우 하반기에는 윗단계 업체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위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대금이 원활히 지급되는지 조사해 문제가 적발되면 시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의류를 시작으로 올해 자동차·기계·선박·건설 등 총 5개 이상 업종을 조사할 방침이다.

"홈 쿠킹 도전 싱글족 잡아라"

주방용품 업계 조리과정 줄이는 간편 도구 출시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직접 요리를 하는 '쿡방'이 요리 초보자나 싱글족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며 주방용품 업계가 이들을 타깃으로 한 간편 요리도구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복잡한 조리과정으로 요리를 어려워하는 요리 초보자들을 위해 조리 시간을 단축하고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의 제품을 내놓고 있다.

코렐 '스냅웨어'는 음식을 보관이 중요한 싱글족들에게 필요한 일체용기로서의 기능은 물론 전자레인지나 오븐에도 바로 조리가 가능한 멀티 기능을 갖춘 제품이다. 3중 압축 유리인 비트렐(Vitrelle™) 소재로 제작돼 가볍고 내열성과 내구성이 뛰어나 뜨거운 열을 가하는 조리 도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리큅에서 출시한 '멀티쿠커'는 80~230℃까지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보온부터 튀김, 볶음, 그릴요리 등 조리법에 따라 8가지 요리가 가능하다.

쿠진 아트의 '스마트 쿡 블렌더'는 강화 유리 용기에 6중 스테인리스스틸 칼날이 있어 믹서 기능은 물론 내장된 이중 코팅 열판으로 열을 가하면서 익히거나 끓일 수 있다.

휘슬러는 소형가구를 위한 맞춤형 세트 구성인 '솔로 원 컬렉션'을 출시했다. 총 5가지 라인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퍼펙트 컬렉션은 압력솥과 함께 이동 가능한 곽단 1구를 구성해 공간의 제약을 덜 받는다. /김수정기자

'제일제면소 제일탄탄면' 판매 10만개 돌파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이해선)은 지난 1월 출시한 냉장면 '제일제면소 제일탄탄면'(사진)이 판매 10만개를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일제면소 제일탄탄면은 중국 사천 지역 요리 '탄탄면'을 한국인 입맛에 맞춘 냉장면으로, 깨끗한 육수와 참깨·땅콩으로 만든 소스 등이 어우러진 제품이다.

그동안 냉장면 시장에서 주류 이루 우동·생면 등 계절 메뉴를 탈피해 '아시안 누들'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창출한 점이 주효했다고 CJ제일제당은 설명했다.

건강한 봄 피부를 원한다면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과도한 세안 피해야

건강이 상하기 쉬운 조절이다. 특히 피부는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해 트러블은 물론 각종 질환에 조심해야 한다.

먼저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야 한다. 낮이 길어지는 봄에는 겨울에 비해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난다. 또 겨울 동안 적응력이 떨어져있던 피부가 갑작스럽게 자외선을 받으면 기미나 주근깨 등의 색소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사람에 비해 자주 얼굴이 빨개지는 안면홍조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자외선은 얼굴 피부의 온도를 높이는데 이로 인해 혈관이 늘어나고 혈관 주위의 탄력섬유나 콜라겐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지금은 피부의 방어력이 떨어지기 쉽다. 방어력이 낮아진 피부는 작은 자극에도 예민해지고 지속적으로 자극이 이어지면 민감성 피부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원래 민감성 피부인 사람이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을 방치하면 자극성 피부염이나 접촉성 피부염 등의 질환이 나타나게 된다.

황사와 꽃가루 역시 피부를 위협하는 요소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황사 속에 포함된 중금속 물질과 초미세먼지가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봄에는 피부 건강이 손상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단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 A와 B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하고 가능한 한 SPF가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세안도 철저히 해야 한다. 황사나 미세먼지, 꽃가루 등의 유해물질을 꼼꼼하게 제거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하는 것은 금물이다. 지나치게 굵은 알갱이의 스크럽 사용도 피부 장벽을 상시킬 수 있으며 오일 사용은 피부에 부담을 줘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

김방순 에스앤유 김방순 피부과 원장은 "피부관리 외에도 평소 생활 속에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수면을 취하는 등 피부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관리를 해도 피부 트러블이 늘거나 피부가 가렵고 얼굴 빨개짐이 잦아진다면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롯데월드 어드벤처 '나이트 파티'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이색적인 나이트 파티를 개최한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오는 27일 폐장 후 밤 10시 30분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심야개장한다. 스페인 해적선·파라오의 분노·후렌치 레볼루션 등 어드벤처 내 14종의 놀이기구를 바로 타며 각종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걸그룹 AOA의 화려한 오프닝 무대와 키썸·타이미·지타가의 합합공연을 펼친다.

더불어 연인을 위한 쌓기 이벤트인 사랑의 쌓기, 60여 종의 고전게임이 내장된 미니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추억의 오락실, 펌프를 이용한 배틀 게임 도전! 펌프와 신, 대형 윷놀이를 이용한 복불복 게임 도전게임 등 이벤트도 진행한다.

나이트 파티의 티켓은 1인 1만7000원으로 위메프·쿠팡·티몬·11번가·G마켓·옥션에서 구입할 수 있다. 나이트 파티가 열리는 당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티켓 교환처에서 입장권으로 교환하면 된다.

/김보라기자

오래 앉는 습관 심부정맥 혈전증 위험 높여

신길자 이대목동병원 교수 "합병증 조심"

혈전증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혈액이 피떡으로 응고돼 혈관을 막으며 발생하는 질환이다. 그중 각 장기를 순환한 후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통로인 정맥 가운데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심부정맥 혈전증이라 한다. 이 질환에 대한 얘기를 신길자(사진) 이대목동병원 심장혈관센터 교수에게서 들어봤다.

심부정맥 혈전은 혈류 속도가 느린 하지 정맥에서 주로 나타난다.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다리를 꼬는 자세가 주요 원인인데 잘못된 자세가 허벅지 부근의 혈관을 압박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다. 주요 증상은 부종과 통증이며 증상이 심해지면 열감이 느껴지고 표재정맥이 피부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피부색이 변하기도 한다.

이 질환은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직장인, 중증 외상 혹은 정형외과 수술 후 중앙 환자, 임신부와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종종 발병한다. 또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혈전이 다른 혈관을 막는 색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다리 근육에서 발생한 혈전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혈전이 심장을 통해 폐로 가는 동맥을 막아 발생하는 폐색전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신 교수는 "오래 앉아 있으면 혈전 형성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스트레칭과 산책 등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또 다리를 위로 올려주거나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강강술래, 봄 나들이 먹거리 할인

육개장·갈비탕 선물세트 30%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나들이나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해 간편식 할인 이벤트를 펼친다.

이달 말까지 전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sulla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육개장선물세트(500㎖ 7팩·14인분)를 2만9000원에, 갈비탕선물세트(500㎖ 7팩·14인분)는 3만95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또 구매 시 한우사골곰탕(350㎖ 2팩)을 덤으로 준다.

같은 기간 쇼핑몰과 전화주문을 통해선 갈비맛 쇠고기육포박스(10봉)를 40% 할인 가격에 판매한다. 찜질한우떡갈비세트(360gX3박스)도 50% 할인한다.

이 외에 통등심돈가스(720g×3박스)와 오쭈렐라돈가스(720g×3박스),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3박스)도 각각 30%씩 할인 판매한다.

/유수정기자

엠아이텍, 무선 저주파 치료기 '레쥬' 출시

엠아이텍이 안전하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주파 치료기 레쥬(ReJu) (사진)를 선보였다.

레쥬는 선이 없어 움직이면서도 사용이 가능한 자석 결합방식의 무선 개인용 저주파 자극 치료기다.

회사는 최근 열린 국제 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에서 제품이 호평을 받아 다수의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회사는 5월 가정의 달까지 제품의 출시를 기념한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080-9000. www.thereju.com

/황

분양시장 '풍요 속 빈곤'…양극화 심화

청약 1순위 1000만 명 시대 불구 미달 사태 여전

지난달 27일 청약제도 개편과 함께 청약 1순위자 1000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분양시장의 풍요 속 빈곤은 계속되고 있다. 청약자 증가와는 별도로, 이른바 되는 곳만 되는 '양극화' 현상이 계속되는 것이다.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미달 사태를 빚는 신규분양 아파트도 잇따르는 실정이다.

1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수도권에서 청약 접수를 받은 곳은 총 7개 단지다. 이 중 이달부터 대폭 청약자 수가 늘어난 1순위에서 마감을 기록한 단지는 경기도 용인의 '지웰 푸르지오' 1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GS건설이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분양한 '청라파크자이 더 테라스'는 1순위에서 최고 56.8대 1 최고 경쟁률을 보이며 대부분의 주택형에서 마감됐다. 또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번영래미안' 아파트가 일부 1순위 마감을 기록했다.

이 외 4개 단지는 1순위 청약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보지 못했다. 용인에서 630가구를 분양한 '용인 영통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는 1순위에서 541가구가 미달됐다. 시흥 배곧신도시 'EG더원'은 810가구 중 553가구가, 김포 감정동 '한강센트럴자이2차'는 587가구 중 396가구가 모집가구수를 채우지 못했다.

특히 경기도 화성에서 120가구를 공급한 '화성봉담 양우내안애' 아파트는 1순위에서 제로 청약률을 보였다.

애초 업계에서는 청약제도 개편과 맞물려 수도권 청약 경쟁률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분양시장 호황을 예상하고 업체들이 다시 신규공급 물량을 쏟아내면서 입지·분양가 지역 내 여건 청약 성적 등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청라파크자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고객들이 분양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달 들어 1순위에서 대규모 미달을 기록한 용인, 시흥 배곧신도시 김포, 화성 등은 이전에도 고질적으로 미분양을 기록했던 지역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공급 증가와 함께 과잉 논란이 일면서 위례 마곡 동탄2신도시 등 검증된 곳으로만 청약자들이 몰리는 추세"라며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돈 되는 곳 으로만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적정 주택공급량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2년까지 적정한 수준의 주택 공급량은 연평균 33만 가구 수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보다 6만 가구가량 많은 연간 39만 가구를 공급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40만 가구 넘게 분양될 예정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신규 분양 물량이 늘어날 경우 해당 지역의 전체 공급물량과 입지 분양가 등에 따라 청약 성적이 갈리게 된다"며 "수요자들은 다양한 조건을 따져본 뒤 본인에게 유리한 단지에 선별 청약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ssoh1@metroseoul.co.kr

유일호 장관 "뉴스테이 조기 안착시킬 것"

유일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강조했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공고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일호 장관은 지난해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주택 시장에 대한 민간의 신뢰는 아직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또 서민과 중산층 주거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보완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이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토정책은 국민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도시 쇠퇴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화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통 물류 분야에서는 체계 전진화와 효율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국가교통망을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하되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복투자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교통운송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택시 택배산업 등의 과당경쟁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족실기자

금강산리조트, 제주도·강원고성서 분양

주식회사 미농이 창사 25주년을 맞아 제주도와 강원도 고성에서 휴양별장형 '제주금강산 리조트'와 '금강산 비치리조트'의 회원권을 특별 할인 분양한다.

세계 7대 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제주도의 '제주금강산 리조트'와 강원도 고성 바닷가 백사장변에 들어선 '금강산 비치리조트'는 시끄러운 도시를 탈출해 조용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쉼터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거품을 뺀 착한 분양가를 적용해 실속패밀리형(53㎡) 395만원, 스위트형(99㎡) 580만원, 로얄스위트형(165㎡) 980만원이다. 완납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며, 제주 고성 외 전국 8곳(설악·청평 도고 남원 나주 지리산·경주·부산 울진) 리조트를 정회원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소유권 등기제 실속형 패밀리 회원권은 선착순 100구좌 마감이다. 또 100명에게는 제주와 고성 리조트 무료 이용권 1박과 고성 비치리조트 해수사우나 이용권 30매를 제공한다.

신청금 입금 순으로 바닷가 객실을 배정 받아 등기를 진행한다. 신청금은 50만원이다. 문의) (02)541-0113

/박선옥 기자 ssoh1@

SK건설 마라톤 동호회

행복날개를 달고 함께 달립니다!

SK

SK건설 '행복나누기 자선레이스' SK건설은 지난 15일 서울국제마라톤 대회에서 불우이웃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행복나누기 자선레이스' 행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SK건설 마라톤 동호회 회원과 임직원 22명이 참가했고 SK건설 임직원 700여명이 후원해 총 1100여만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SK건설 제공

오피스텔 수익률 예금금리 3배

고소득 1인 가구↑·금리↓…"투자자 수익률 허용 범위 커져"

기준 금리가 1%대로 떨어지며 저축보다는 수익형상품 투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임대사업의 경우 그동안 공급과잉 우려가 있었지만 초저금리 시대로 접어든 만큼 다른 대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오피스텔 투자수익률은 지난해 평균 5.91%를 기록했다. 정기예금 금리가 2.44%인 것과 비교하면 수익률이 2배 이상 웃돌았다. 예·적금 금리가 1%대로 주저 앉은 올해 오피스텔 수익률은 최소 3배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예·적금금리가 1%대로 잇따라 하락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으로 받은 목돈을 굴려 은행 이자로 생활하기가 더 이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이 때문에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자보다 안정적인 월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파악한 지난 2월 수도권 월세가격은 23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추며 상승 발판을 마련했다.

월세 거래 건수도 눈에 띄게 늘었다.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월세 거래 건수가 전달대비 32.1% 늘어난 52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1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건수로, 직전 최고치인 지난해 2월 4979건보다도 늘어난 수치다.

특히 월세 임대를 목적으로 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서울 도심 대학가 오피스텔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매매차익에서 큰 메리트가 없던 오피스텔도 상권에 따라서는 프리미엄이 수천만원대로 붙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가장 발달된 상권으로 꼽히는 홍대입구역 합정역 인근 오피스텔은 7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매매가가 올랐다.

합정역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월세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임대료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직장에 다니는 고소득 1인 가구 수요자들이 늘어나는 추세고 전세물건이 다 월세로 돌아서는 판인데 이미 한 번 형성된 임대료가 낮아질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과잉공급 지역에서 임대료가 조금 낮더라도 금리가 경쟁없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허용 범위가 커지는 것이니 예상 수익률에 미치지 못해도 리스크가 크다고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며 "신규 대단지나 오피스텔 공급이 한꺼번에 몰린 지역에서는 임대료를 조금 낮추더라도 일단 공실을 만들지 말고 장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대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마곡이나 강남 송파 지역 등에서 신규 오피스텔 공급이 많아 평균으로 보면 오피스텔 투자 수익률이 녹록치 않은 것처럼 보인다"며 "무조건 새 것을 찾기보다 상권 발달 정도와 인근 오피스텔 공급량을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하늘기자 kmnc8104@

'사월의 눈'으로 컴백 허각

기존 발표곡과 달라… 고음 없이 담담하게
가정 꾸린 후 첫 앨범… 가족의 응원 든든

가수 허각(30)이 약 17개월의 공백 끝에 컴백한다. 엠넷 '슈퍼스타K2' 우승자 타이틀은 이제 식상하게 느껴질 만큼 그는 자신의 앨범은 물론 각종 드라마 OST를 연이어 흥행시키며 음원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17일 미니 3집 앨범 '사월의 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그는 "집에만 있었더니 좀이 쑤시더"며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었다"고 말했다.

◆ 4월에 눈이 내린다면

타이틀곡 '사월의 눈'은 벚꽃을 눈송이에 비유한 가사가 인상 깊은 발라드 곡이다. 많은 이들이 따스함과 설렘을 이야기하는 봄에 그는 가슴 시린 이별의 아픔을 겪은 한 남자의 마음을 노래했다.

"봄이라고 해서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엔딩'을 노린 건 아니에요(웃음). 추위가 가고 따뜻해지는 시기에 이별의 아픔이 가시고 따뜻한 사랑이 올 수 있을지를 노래했어요. 사실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이별을 노래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 노래는 슬프지만 전 지금 행복하니까요. 그래서 감정을 잡기 위해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했죠."

많은 팬들은 허각의 노래에서 시원하게 뻗어 가는 고음을 듣길 기대한다. 하지만 '사월의 눈'은 이 같은 기대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곡의 전반부를 거쳐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감정의 과잉 한 번 없이 담담한 목소리가 이어진다.

"그래서 제 힘들었어요. 수정 녹음을 무려 6번이나 할 정도였죠. 그동안 불렀던 노래는 세게 내지르거나 목소리에 거친음을 넣거나, 격한 감정으로 불렀거든요. 이번 노래는 전혀 그렇지 않아서 녹음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게다가 그런 과정을 겪으니 굉장히 예민해지기까지 했죠."

그는 이번 신곡을 부르기 위해 영화 '당신이 사랑하는 동안에' '섬웜' '이터널 선샤인' 등을 약 10회 이상 봤다고 했다.

"슬픈 발라드가 제 목소리와 잘 어울리니 가수로선 좋지요. 하지만 지금 제 시기가 참 행복하고 단란할 때인데 이별 노래를 주로 하려니 노력이 많이 필요했어요. 사실 평소엔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 같은 호러 영화를 좋아하거든요(웃음)."

◆ 아빠가 되어 돌아오다

이번 앨범은 특히 그에게 의미가 깊다. 30대가 된 후 처음 발표하는 음반이자 한 여자의 남편,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후 낸 첫 음반이기 때문이다.

그는 가족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힘이 난다고 했다.

"감수성이 확실히 풍부해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날 것 같다니까요?(웃음)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엄태웅 씨가 딸만 보면 우시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니까 우울증을 의심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가족 덕분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더 큰 부담이 생겼다고 한다.

"데뷔 후 지금까지 앨범을 발표하기 2~3주 전엔 늘 불면증에 시달려요. 순위에 대한 부담이라기 보단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신경 쓰여서요. 특히 가족이 생기고 난 뒤 첫 앨범이라 그런지 부담이 더 커졌어요. 성적은 신경 안 쓴다고 했지만,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많이 응원해주고 있는데 잘 안되면 창피할 것 같거든요(웃음)."

/김지민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디자인/[illegible]

star bag

'앵그리맘'서 김희선 딸 출연

배우 김유정이 김희선과의 모녀 케미를 자신했다. 그는 "극 중 엄마인 김희선을 처음 봤을 때 언니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았다. 현실에 없을 것 같은 엄마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김유정과 김희선이 출연하는 MBC 새 수목극 '앵그리맘'은 오는 18일 첫 방송된다.

'장수상회' 10대 커플 호흡

그룹 엑소 멤버 찬열과 신예 배우 문가영이 영화 '장수상회'(감독 강제규)에서 10대 커플로 호흡을 맞췄다. 찬열은 이번 영화로 처음 연기에 도전했다. 아영의 남자친구이자 순정파 고등학생인 민성 역으로 풋풋하고 싱그러운 매력을 발산했다. 다음달 개봉 예정이다.

'더러버' 2년 차 연인 케미

배우 류현경·오정세가 엠넷 새 드라마 '더러버' 커플 사진을 공개했다. 결혼 대신 동거를 택한 2년차 커플로 출연할 예정이다. 미소를 짓고 있는 오정세와 그를 옆 눈으로 보고 있는 류현경의 익살스러운 표정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내달 2일 오후 11시 첫 방송.

생존예능 '필살기쇼'서 입담 대결

김구라·전현무가 SBS플러스 '필살기쇼' MC가 됐다. 사회의 숨겨진 고수들에게 필살기를 배우는 생존 예능프로그램이다. MC와 게스트들은 일반인 고수의 아이템 중 최고의 필살기를 선정하기 위해 대결한다. 두 사람의 입담 경쟁이 관전 포인트다. 내달 4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

3월 14일 토 밤 11시 첫방송
FashionN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follow me
5
Real Queen
tcast

"156km 광속구 김강률, 두산 불펜의 키"

시범경기 연속 세이브 등 돋보이는 활약… 팀 마무리 판도 변화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우완 투수 김강률(27·사진)이 연일 역투를 펼치며 두산 마무리 판도를 흔들고 있다.

두산은 지난해 마무리 투수 이용찬이 시즌을 마치고 군입대를 하며 뒷문에 공백이 생겼다. 김태형 두산 감독은 올해 마무리 투수 후보로 노경은·이재우·이현승을 꼽은 뒤 스프링캠프를 통해 노경은으로 마음을 굳혔다. 하지만 노경은이 지난달 라이브 피칭 도중 타구에 얼굴을 맞아 턱관절이 골절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자연스럽게 셋업맨이었던 윤명준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팔심 테가 좋지 않아 실전 등판을 미뤘던 윤명준은 지난 12일 KIA와 2군 경기서 1⅓이닝 1피안타 무사사구 3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14일 롯데와 2군 경기에서 1⅓이닝 2피안타(1피홈런) 1볼넷 2탈삼진 2실점을 기록하는 등 몸 상태를 끌어올렸다.

이기에 또 다른 마무리 대안으로 김강률이 떠올랐다.

두산의 애리조나 스프링캠프에서 시속 155km의 강속구를 손쉽게 뿌렸던 김강률은 미야자키에서 5경기를 뛰며 6이닝 6피안타 7탈삼진에 2실점을 기록하며 2015 두산 미스터 미야자키에 뽑혔다.

이어 시범경기에서도 4경기서 2세이브 1홀드 평균자책점 2.25를 기록하며 두산 마운드에서 단연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12이닝 동안 단 1개의 볼넷과 3개의 안타만을 허용하며 5개의 삼진을 잡아낸 내용도 인상적이다.

특히 12일과 14일 경기서는 최고 시속 156km의 강속구를 뿌리며 연속해서 세이브를 올렸다.

김태형 감독은 "김강률은 매년 두산의 기대주였지만 제구가 들쑥날쑥하고 투구내용도 기복이 많았다"며 "하지만 올해 정말 많이 좋아졌다. 단연 올해 두산 불펜의 키는 김강률"이라고 칭찬했다.

마무리로 윤명준과 김강률을 놓고 저울질하는 김 감독은 흐뭇하기만 하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18일 새벽 출격… 레버쿠젠 챔스리그 8강 도전

손흥민(23·사진)이 독일 프로축구 레버쿠젠의 13년 만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을 위해 뛴다.

레버쿠젠은 18일 오전 4시45분(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비센테 칼데론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와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격돌한다.

레버쿠젠은 지난달 26일 홈에서 벌어진 1차전에서 하칸 찰하놀루의 결승 골에 힘입어 1-0으로 이겼다. 그러나 2차전은 원정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잡는다면 레버쿠젠은 2001-2002 시즌 이후 처음으로 UEFA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오른다. 2001-2002시즌 대회에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에 져 준우승한 레버쿠젠은 이후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올 시즌 들어 물오른 골 감각을 뽐내는 손흥민이 해결사로 나선다.

손흥민은 1차전에서 골을 터뜨리지 못했지만 활약을 펼쳐 팀 승리를 도왔다. 이후 9일 파더보른과의 정규리그 경기에서 2골을 뽑아내며 득점포를 재가동, 한 시즌 최다 골을 16골로 늘린 상태다.

지난해 대회 준우승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UEFA 주관대회에서 최근 치른 홈 22경기 중에서 20승을 따낼 정도로 가공할 만한 홈 강세를 보였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도 홈에서 치른 3경기를 모두 이겼다. 득점은 10골에 실점은 없었다.

하지만 수비의 핵심인 디에고 고딘과 미드필더 티아구가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해 레버쿠젠으로서는 행운이다. /김민준기자

'영건' 조던 스피스 시즌 첫 승

PGA 발스파 챔피언십… 한국계 대니 리는 공동 7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영건 조던 스피스(21·미국)가 발스파 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승을 거뒀다.

스피스는 16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이니스브룩 리조트(파71·734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2타를 줄이며 합계 10언더파 274타로 패트릭 리드·숀 오헤어(이상 미국)와 동타를 이뤘다.

세 번째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스피스는 17번홀(파3)에서 버디 퍼트를 넣어 2013년 존 디어 클래식을 포함, 개인 통산 두 번째 우승을 기록했다. 상금은 106만2000 달러(약 12억8000만원)다. 이번 우승으로 새로 발표되는 세계랭킹에서 6위까지 뛰어 오를 전망이다.

한국계 선수들로는 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25)가 4라운드에서 4타를 줄여 공동 7위(5언더파 279타)로 순위를 끌어올려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재미동포 케빈 나(32)는 공동 10위(4언더파 280타), 박성준(29)과 존 허(25)는 공동 33위(1언더파 283타)에 올랐다. 배상문(29)은 6오버파 290타를 쳐 67위에 머물렀다. /정동은기자

조던 스피스

휴식 마친 추신수 득점 올렸지만…

2타수 무안타 기록… 타율 0.222 하락

이틀 동안 휴식을 취하고 선발 라인업에 복귀한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사진)가 출루에 성공해 득점까지 올렸으나 안타는 생산하지 못했다.

추신수는 16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 시범경기에 3번타자 우익수로 선발출전했다. 13일 화이트삭스전 이후 3일 만의 라인업 복귀다.

추신수는 1회말 무사 1, 2루에서 볼넷을 골라 대량득점의 발판을 놨다. 미치 모어랜드의 안타 때 홈을 밟아 시범경기 두 번째 득점을 올렸다.

2회에는 2루 땅볼, 4회에는 1루 땅볼에 그쳐 시범경기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에 멈췄다. 7회초 수비 때 네이트 슈어홀츠로 교체되며 시범경기 타율이 0.250에서 0.222(18타수 4안타)로 떨어졌다. /정동은기자

인순이 아너소사이어티 홍보대사 위촉 가수 인순이가 16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773호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과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허동수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에게 인증패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차별없는 배움 실천해요"

건국대 장애학생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가 차별없는 배움을 실천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건국대는 이번 학기부터 장애학생 학부모에게 도서관을 개방하고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16일 밝혔다.

건국대에 따르면 올해 학교에 입학한 장애학생 15명을 포함해 이번 학기에 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은 총 77명이다. 건국대는 이들을 위해 먼저 기존에 운영 중인 장애학생 도우미제도를 보완해 장애학생 서포터즈제도를 마련했다.

서포터즈제도는 장애학생이 교내 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도우미와 1대 1로 연결되지 않은 장애학생도 모두가 강의대필이나 이동 등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건국대는 장애학생 학부모에게 도서관을 개방할 계획이다. 장애학생 학부모는 재학생과 동일하게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고 도서 대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도서관 이용을 원하는 학부모는 학생증과 가족증명서를 갖고 도서관 출입증을 발급받아야만 한다.

이외에도 건국대는 학생회관에 장애학생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며 인문학관, 연구동과 강의동을 잇는 연결통로의 설치도 마쳤다.

김영은 장애학생지원센터 센터장은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등 장애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한 서비스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 장애학생들이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행정을 맞춰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편함이 완벽히 해소될 수 있도록 동료 학생들과 교직원의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서울 시내버스 만족도 소폭 상승

쾌적성 가장 높아

서울 시내버스는 쾌적하고 신뢰할만하다고 평가된 반면 안정성과 편리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는 해당 버스 노선을 한달 넘게 주 3회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 총 2만 1639명을 상대로 작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한 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쾌적성·편리성·안전성·신뢰성 4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의 만족도가 전년보다 1점 이상 상승해 평균 79.24점의 만족도를 보였다.

쾌적성은 2013년 79.86점에서 81.17점으로 1.31점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신뢰성은 77.92점에서 79.08점으로, 편리성은 77.32점에서 78.36점, 안전성은 76.68점에서 77.78점으로 각각 올랐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다소 낮게 나온 시내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부문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급출발과 급제동, 무정차 통과 등은 자제해 승객의 버스 승하차를 돕는 승차 배려 캠페인을 매월 2회 이상 주요 버스 정류소에서 시행하고 이같은 운행 실태를 점검해 업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노선이나 정류소 변경, 임시운행 정보 등 정확한 정보 안내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조현정기자

기업, 실무투입 가능 인재 가장 선호

불황이 깊어질수록 곧바로 실무투입이 가능한 인재가 각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16일 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2.2%의 기업이 경기가 나빠지면서 선호하는 신입사원 인재 기준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불황기에 가장 선호되는 인재상은 '실무에 적용 가능한 경험이 많은 인재'(47.4%)가 선정됐다. 이어 '애사심이 크고 오래 일하려는 인재'(16.5%), '긍정적이고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인재'(12.4%), '활용도 높은 기술을 많이 보유한 인재'(10.3%),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좋은 인재'(8.3%), '위기 대처에 필요한 순발력이 있는 인재'(2.1%) 순이었다.

경기 침체는 채용 방식에도 영향을 끼쳤다. 설문 기업의 79.1%는 '불황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소기업(81%), 중견기업(68.2%), 대기업(62.5%) 순으로 불황 체감률이 높았다. 이 때문에 소시 기업의 33.9%는 불황으로 채용 규모를 축소했다고 밝혔으며 경력직 채용 비중을 늘였다는 비율도 30.4%를 지지했다. /정은희기자 unique@

봄맞이 대청소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앞 올림픽로에서 송파구청 관계자들이 올림픽 상징 조형물을 청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추진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오는 23일까지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할 14개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최종 선정된 기관은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취업 알선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간 1억9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직업안정법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로 취업 알선과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단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전용면적 66㎡ 이상 권장)과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경력자가 있어야 한다. /황재용기자

인사

■행정자치부
서기관 승진 ▲의정관실 상훈담당관실 유재권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황충식 ▲기획조정실 정책평가담당관실 박세영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실 양상수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과 고광다 ▲창조정부조직실 조직진단과 조환선 ▲창조정부조직실 인영제도과 선동수 ▲전자정부국 전자정부정책과 김수진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전상철 ▲지방행정실 자치행정과 최현모 ▲지방행정실 지방규제혁신과 박용식 ▲지방행정실 지방인사제도과 김운일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과 곽준길 ▲지방재정세제실 교부세과 강봉길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운영과 강현희 ◇기술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정책평가담당관실 주금애 ▲창조정부조직실 협업행정과 김인광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장근식 ▲지방재정세제실 주소정책과 이제영 ▲정부청사관리소 청사이전사업과 김승봉 ▲지방행정실 지역발전과 차윤준 ▲국가기록원 수집공개과 남식한

■국방부
국장급 승진 ▲계획예산관 김선준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기술규제대응국장 변영탄 ◇과장급 파견 ▲FTA무역종합지원센터 파견 유동주

■우정사업본부
◇4급 전보 ▲정구조기획담당관 정현철 ▲금융영업과장 인재석

■우리은행
◇지점장 승진 ▲위례신도시 조혁희 ▲LH진주혁신도시 김병선

■KTB투자증권
신임 ▲홍보팀장 전행덕

■메리츠종금증권
◇신규 임원 선임 ▲투자금융사업본부 이선호 상무보

■한국체임거래협회
▲인사부 부서장 박봉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실장 조원환 ▲기획담당관 김승준 ▲국토정책과장 최병락 ▲도시정책과장 김규현

■포스코ICT
상무 ▲경영기획실장 윤덕원 ▲SmartIT사업실장 전덕균 ▲Smart Factory사업실 광양사업 담당 김은영 ◇상무보 ▲경영기획그룹장 유광욱 ▲SIE사업개발부 SmartPCP 김재윤 ▲해외IT사업부 SmartPCP 김준환 ▲인도네시아법인장 김경식

부고

▲이복선(성화통산 전 대표)씨 별세, 이호근(노상석자 여수지점 씨 부친상, 이상대(학술지과 기표정 LH공사 관구원) 김태오(독립프로듀서)씨 빙모상 = 16일 오전 6시, 서울 아산병원장례식장 34호, 발인 18일 오전 5시 02-3010-2234

▲진상례씨 별세, 황재택(TJB 대전방송 광고사업국 차장)씨 모친상 = 15일 오후, 청주 농협 장례식장 특실, 발인 18일 오전 5시30분 041-642-4500

▲박정순씨 별세, 박장훈(KBS대전총국 기자)씨 부친상, 김숙경(KBS대전총국 아나운서)씨 시부상 = 16일 오전 2시 30분,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특실 202호, 발인 18일 오전 8시 042-600-1550

▲유세청씨 별세, 유근원(디지털타임스 정경부 기자) 두 아씨 부친상 = 16일, 강북삼성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02-2001-1036

성매매특별법도 위헌 심판대

내달 9일 첫 공개변론-김강자 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등 참고인 출석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첫 공개 변론이 다음달 9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4월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대한 심판 변론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파생된 사건이라 성매수 남성이나 성매매 알선자 처벌 문제는 다뤄지지 않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2013년 "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성매매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는 반면, 학계와 여성계는 처벌 규정 폐지가 성매매 산업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공개 변론을 위해 김강자 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 등은 각각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추천 참고인으로 지정됐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서울대 실험농장서 구제역 의심돼지 15일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인 돼지가 발견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부속실험농장 안으로 방역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제397차 민방위의 날인 16일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영등포소방서 대원들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교통량이 많은 전국 주요 혼잡구간 263곳에서 이 훈련을 일제히 진행했다. /연합뉴스

새만금 방수제 건설담합 SK건설 수사

검찰, 공정위에 고발요청권 행사

검찰이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담합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2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건설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이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공정거래법상 고발요청권을 공정위에 행사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에 따라 공정위에서 SK건설 법인을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7개 공구 건설공사 입찰 중 3개 입찰 과정에서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한화건설 ▲SK건설 등 건설사 12곳이 사전에 투찰금을 합의한 것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총 260억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낙찰된 공사금액이 1000억원을 넘는 대형 공사라는 점과 들러리 업체까지 참여시켜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한 점, SK건설이 이 과정에서 입찰을 담합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고발요청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이번 수사가 이뤄지게 됐으며 사건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전동훈)가 배당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의 고발요청권은 지난 1996년 도입됐으며 이후 2013년 7월 공정거래법 71조 3항에 '검찰총장은 객관적으로 명백·중대해 현저히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또 이번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는 개정법에 근거한 첫 사례로 최근 정부가 과제 1순위로 꼽은 '부정부패 척결'과 함께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로 탈바꿈한 만큼 공정거래에 대한 수사 의지로도 풀이된다.

/황재용기자 hsoul38@

23일부터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부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되며 조사 내용은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과 예방교육의 효과 등이다.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나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의 자율적 참여와 응답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화면 블루밍 설정도 가능하다.

아울러 조사 결과는 올해 11월 학교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에 2차 조사(9~10월 예정)결과와 함께 공개된다.

/황재용기자

이별 통보 연인 납치해 '공포의 질주'

30대 남성 징역 10월

이별 통보를 한 연인을 납치해 렌터카에 태우고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며 "함께 죽자"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신모(31)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9월 연인이었던 윤모(31)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그는 윤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만나주지 않자 렌터카를 빌려 윤씨의 집 앞 버스정류장으로 갔다.

버스에서 내리는 윤씨의 팔을 잡아끌어 렌터카에 태운 신씨는 곧장 올림픽대로로 내달렸다.

이같은 공포의 질주는 2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윤씨는 결국 운전대를 꺾었고, 차량은 임시대교 교각을 들이받고 겨우 멈춰 섰다. 차는 반파됐고 윤씨는 허리와 등에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1시간 50분간 자신의 집에서 58km 떨어진 곳까지 끌려가면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핸들을 꺾어 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하게 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현대중공업 노조, 권오갑 사장 검찰 고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위원장 정병모)은 이사원 희망퇴직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로 권오갑(사진) 사장과 본부장, 부서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노조는 고발 이유에 대해 "회사 측이 이사원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해고 회피 노력은 다하지 않았고, 노조와도 협의 없이 진행한 점 등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권 사장과 조선본부 임원과 부서장 등 4명이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전환배치 했다며 같은 혐의로 울산지검에 추가로 고발했다.

노조는 "권 사장 등은 최근 도장5부 직원 52명을 선행도장부로 전환배치하면서 직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노조와 협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형사 고발에 이어 앞으로 이사원 희망퇴직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체협약 불이행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쟁의행위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회사의 불법부당 행위로 △희망퇴직 시 지급하는 지기계발비가 3000만원(현 1500만원)으로 올랐다는 식으로 면담한 사례 △회사 간부들이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한 사례 △전환배치될 수 있다며 스스로 판단하라고 강요한 사례 등을 들었다.

/이승필기자 rontan@